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드 메디치 가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고찰을 통한 헤어디자인 제안 연구



2015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 전공

허정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드 메디치 가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고찰을 통한 헤어디자인 제안 연구

A Proposal on hair style Review of Contemporary Desig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house of de medich women.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 전공

허정애

허정애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드 메디치 가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고찰을 통한 헤어디자인 제안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 전공
허 정 애

본 연구는 수세기동안 유럽 문화를 지배해 온 드 메디치 가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을 문헌과 초상화를 통해 고찰한 후 그 조형적 특성을 모티브로 삼아 현대 생활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헤어디자인 작품으로 제작함으로써 디자인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메디치 가문의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서적, 박물관 전시물, 선행 연구물이나 사진 자료, 문헌, 학회지를 참고로 하여 여성들에 대해 분석한 후, 동시대에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을 통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둘째, 여성들이 지닌 헤어스타일의 특성을 응용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헤어디자인의 조형 요소를 형태, 장식, 질감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작품 제작을 위해 업스타일에 대한 기술적 테크닉을 분석하고, 악세사리나 헤어피스를 제작하였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헤어 스타일을 응용하여 현대적 기법으로 재해석한 후 작품 창작을 하였다.

이에 따라 메디치 가문 여성들의 스타일을 응용한 총 6작품을 선정하여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카트린 - 불멸의 사랑’으로 카트린 드 메디치의 검

정과 흰색의 조화를 가진 드레스와 헤드 드레스를 모티브로 하여 서양 장례식 업스타일 및 장례식용 모자(funeral bonnet)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작품의 제목은 ‘디안 - 영원한 젊음’으로 20년이나 젊은 앙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디안의 영원한 젊음을 이브닝 파티 업스타일(evening party up-style)로 제안하였다.

세 번째 작품의 제목은 ‘마리 - 꿈 너머 꿈’으로 프랑스 앙리 4세의 부인인 마리 드 메디치는 왕비의 면모답게 우아한 업스타일의 기법을 많이 활용했는데 마리 드 메디치의 헤어스타일을 통해 백일잔치 업스타일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 작품의 제목은 ‘이사벨라 - 콤비네이션’으로 르네상스 최고의 교양 있는 여성이자, 후원자, 정치적인 외교력을 겸비한 여성이었던 이사벨 데스테의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을 응용해 사랑의 서약으로 앞날을 약속하는 의미가 깃든 약혼식 스타일을 제안하였다.

다섯 번째 작품의 제목은 ‘마르그리트 - 애증의 강’으로 카트린 드 메디치의 막내딸이자 ‘영화’ 마고의 주인공이었던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지성, 젊고 활력 넘치는 마르그리트의 매력을 헤어스타일에 접목시켜, 볼륨감 있는 업스타일에 헤드드레스의 장식만큼이나 화려한 이미지를 지닌 그녀의 스타일을 피로연 업스타일로 제안하였다.

여섯 번째 작품의 제목은 ‘가브리엘 - 잊지말아요’로 프랑스 국왕 앙리 4세의 애첩이었던 그녀는 앙리 4세와의 변함없는 사랑을 추구했던 아름다운 가브리엘의 헤어스타일을 모티브로 하여 풍성한 볼륨감과 우아함을 강조한 웨딩업스타일을 제안하였다.

상기에 열거한 바와 같이 총 6작품으로 제안한 디자인을 연출해보았다. 선행 논문에는 미술사조나 건축사조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은 많으나 가문의 인물들을 토대로 스타일을 제작한 사례는 많지 않아 앞으로 다양한 가문 여인들의 스타일 연구를 통해 헤어스타일의 역사와 더불어 현대 헤어디자인에 접목하는 창작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메디치가문, 피렌체, 르네상스, 헤어디자인, 길드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드 메디치 가문의 역사	3
2.1 드 메디치 가문의 시대적 배경	3
2.2 동시대의 유행적 헤어스타일	27
III. 드 메디치 가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고찰	38
3.1 드 메디치 가문 여성들	38
3.2 드 메디치 가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분석	49
IV. 현대적 헤어디자인 작품 제안	67
4.1 카트린 - 불멸의 사랑	67
4.1.1 작품의도 및 일러스트	67
4.1.2 작품 분석	70
4.1.3 작품 제작 순서	71
4.1.4 작품 사진	72
4.2 디안 - 영원한 젊음	73
4.2.1 작품의도 및 일러스트	73
4.2.2 작품 분석	75

4.2.3 작품 제작 순서	76
4.2.4 작품 사진	77
4.3 마리 - 꿈 너머 꿈	78
4.3.1 작품의도 및 일러스트	78
4.3.2 작품 분석	80
4.3.3 작품 제작 순서	81
4.3.4 작품 사진	82
4.4 이사벨 - 콤비네이션	83
4.4.1 작품의도 및 일러스트	83
4.4.2 작품 분석	85
4.4.3 작품 제작 순서	86
4.4.4 작품 사진	87
4.5 마르그리트 - 애증의 강	88
4.5.1 작품의도 및 일러스트	88
4.5.2 작품 분석	90
4.5.3 작품 제작 순서	91
4.5.4 작품 사진	92
4.6 가브리엘 - 잊지말아요	93
4.6.1 작품의도 및 일러스트	93
4.6.2 작품 분석	95
4.6.3 작품 제작 순서	96
4.6.4 작품 사진	97
4.7 작품 요약	98
 V. 결 론	 100
 참고문헌	 104
ABSTRACT	109

표 목 차

<표 1> 색채의 연상	57
<표 2> 업스타일 표현기법	58
<표 3> 카트린 드 메디치 헤어스타일분석	59
<표 4>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헤어스타일분석	60
<표 5> 가브리엘 테스트레 헤어스타일분석	61
<표 6> 마리 드 메디치 헤어스타일분석	62
<표 7> 디안 드 푸아티에 헤어스타일분석	63
<표 8> 이사벨라 데스테 헤어스타일분석	64
<표 9> 메리 스튜어트 헤어스타일분석	65
<표 10> 잔달브레 헤어스타일분석	66
<표 11> 앤볼린 헤어스타일분석	67
<표 12> 엘리자베스 1세 헤어스타일분석	68
<표 13> 카트린-불멸의 사랑 일러스트	69
<표 14> 카트린-불멸의 사랑 작품분석	72
<표 15> 카트린-불멸의 사랑 작품제작순서	73
<표 16> 카트린-불멸의 사랑 작품사진	74
<표 17> 디안-영원한 젊음 일러스트	76
<표 18> 디안-영원한 젊음 작품분석	77
<표 19> 디안-영원한 젊음 작품제작순서	78
<표 20> 디안-영원한 젊음 작품사진	79
<표 21> 마리-꿈 너머 꿈 일러스트	81
<표 22> 마리-꿈 너머 꿈 작품분석	82
<표 23> 마리-꿈 너머 꿈 작품제작순서	83
<표 24> 마리-꿈 너머 꿈 작품사진	84
<표 25> 이사벨라-콤비네이션 일러스트	86
<표 26> 이사벨라-콤비네이션 작품분석	87
<표 27> 이사벨라-콤비네이션 작품제작순서	88

<표 28> 이사벨라-콤비네이션 작품사진	89
<표 29> 마르그리트-애증의 강 일러스트	91
<표 30> 마르그리트-애증의 강 작품분석	92
<표 31> 마르그리트-애증의 강 작품제작순서	93
<표 32> 마르그리트-애증의 강 작품사진	94
<표 33> 가브리엘-잊지말아요 일러스트	96
<표 34> 가브리엘-잊지말아요 작품분석	97
<표 35> 가브리엘-잊지말아요 작품제작순서	98
<표 36> 가브리엘-잊지말아요 작품사진	99
<표 37> 작품요약	100



그림 목 차

[그림 1] 피렌체 전경	6
[그림 2] 메디치 가문 가계도	8
[그림 3] 코시모 데 메디치	15
[그림 4] 위대한 자 로렌초	17
[그림 5] 레오 10세	18
[그림 6] 클레멘스 7세	19
[그림 7] 카트린 드 메디치	20
[그림 8] 마리 드 메디치	22
[그림 9] 레오나르도 다빈치	23
[그림 10] 미켈란젤로	24
[그림 11] 라파엘로	25
[그림 12] 봄	26
[그림 13] 비너스의 탄생	26
[그림 14] 14세기 영국 헤어스타일	28
[그림 15] 14세기 이탈리아 헤어스타일	28
[그림 16] 14세기 프랑스 헤어스타일	38
[그림 17] 라벨라 헤어스타일	31
[그림 18] 15세기 이탈리아 헤어스타일	32
[그림 19] 15세기 프랑스 헤어스타일	32
[그림 20] 16세기 영국 헤어패션	33
[그림 21] 엘리자베스 1세 가발 스타일	34
[그림 22]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35
[그림 23] 16세기 독일 헤어스타일	37
[그림 24] 16세기 프랑스 헤어스타일	37
[그림 25] 머리를 탈색하는 베네치아 여성	38
[그림 26]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41
[그림 27] 가브리엘 데스트레	42

[그림 28] 디안 드 푸아티에	43
[그림 29] 앤불린	44
[그림 30] 마리 드 메디치	45
[그림 31] 메리 스튜어트	47
[그림 32] 카테리나 스포르차	48
[그림 33] 잔달브레	49
[그림 34] 엘리자베스 1세	50
[그림 35] 안나마리아 루이사와 남편	51
[그림 36] 장례식용 모자(funeral bonnet)	69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미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고 사회적인 규정의 가치와 미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정치, 문화, 사상 등은 모두 미의 기준에 영향을 주는데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시대마다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권구정, 2006).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 본능은 인간의 기본 욕구지만 예나 지금이나 시대적 풍조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등에 민감하고 이런 미용 문화는 새롭게 조합되거나 변형되어간다.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던 메디치 가문은 세계 최고의 부자 가문이자 프랑스 왕비를 두 명이나 배출한 왕실 가문으로 이 가문의 여성들은 정략결혼을 통해 막대한 지참금을 지급하고 왕실의 일원이 되어 권력을 누림과 동시에 왕의 총애를 받고자 엄청난 외모관리와 미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르네상스의 꽃을 피워준 메디치 가문은 시대를 화려하게 풍미했던 여인들의 터전이 되었던 바 본 연구는 메디치 가문 여성들이 연출했었던 헤어스타일을 고찰해보고 현대적 스타일에 맞게 디자인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메디치 가문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자료는 동시대에 작품 활동을 활발히 했었던 화가들의 초상화나 인물화, 회화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특히 메디치 가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같은 천재적인 화가들을 조건 없이 후원한 결과 훌륭한 작품으로 되돌아 왔고 그들의 작품을 통해 시대별 복식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 미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다.

시대마다 회화를 비롯해 건축, 조각, 복식등과 같은 예술 문화적 산물은 시대적 이상미를 구현, 기록되어온 역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회화 속에는 그 시대의 삶과 미적 관점이 그대로 재현되었고 그 시대의 미술작품에 나타난 인체의 표현방식을 살핌으로서 인체에 대한 미의식을 알아볼 수 있다(류기주, 김민자

1992).

인물화에서는 여인들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여성스러운 곡선미가 표현된 작품들이 많다. 왕실의 일원으로, 수많은 정부와 처첩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메디치 가문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우아함과 세련미를 갖추고 있는 바 미용문화사적 자료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시대의 헤어스타일을 통해 현대적 디자인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메디치 가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분석을 통해 현대적 디자인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 전역에 걸쳐 막강한 권력을 펼쳤던 메디치 가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메디치 가문의 터전이 되었던 이탈리아 피렌체에 대해 알아본 후 동시대에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둘째, 메디치 가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고찰을 위해 르네상스 시대에 활약했던 미술가들의 작품을 분석 후 헤어스타일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특히 메디치 가문이 후원한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나 인물화 등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을 토대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국내외 전문서적, 선행논문,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 디자인에 관한 서적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한 후 현대적 헤어디자인에 응용, 작품을 제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작품 디자인 의도, 표현기법을 다양하게 구사하여 창의적 스타일의 제작과 현대적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II. 드 메디치 가문의 역사

2.1 드 메디치 가문의 시대적 배경

2.1.1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나다’의 의미로 부유한 상업도시인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서 건축가인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를 중심으로 미술가들에 의해 새로운 미술을 창조하고 과거의 미술을 탈피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14~16세기에 걸쳐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문예부활과 함께 중세 기독교 문화의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존중, 개성해방을 추구하여 간혀있던 인간성을 부활시킨다는(김옥연 외 7인, 2013)의미이다. 이러한 시도는 로마, 베네치아로 전파되며 1500년 경에는 북유럽 르네상스로 일컬어지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으로 퍼져 나갔다.

르네상스시대에는 그리스 로마의 미술, 문학이 재음미되었고 인체,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가 이루어졌으며 해부학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초상화, 풍경화, 신화 등 새로운 회화의 지평을 열었다. 예술가들의 지위도 상승하여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거장이 탄생하기도 했으며 근대화의 시발점으로 영혼, 금욕, 내세를 강조하는 종교적인 세계관에 반대하여 인간, 물질, 현세를 강조하는 세속주의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신 앞에 인간은 왜소한 존재라는 크리스티교의 주장을 거부하고 개인의 발전과 가치를 인정한 개인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인간중심사상은 정치적 측면에서도 강했던 국민주의의 정신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강하게(김경하, 2004) 나타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길드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된 중세 말 14세기, 시민대표로 공화제가 형성된 15세기에서 16세기 초, 교황의 권한이 확장된 16세기로(이은기, 2002) 나누어진다. 15세기에는 마사치오에 의해 르네상스 회화의 막이 열렸고 16세기 초 르네상스의 전성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의 회화는 서양회화의 길을 제시해준과

동시에 중세의 종교적 주제에서 벗어나 초상화, 종교화, 풍경화, 나체화 등 다양한 표현들을 하게 됨을 발견할 수 있다(최수현, 1994).

이러한 천재 화가들의 고전주의와 휴머니즘에 의한 세속적인 관심은 미술에서 초상화의 장르를 확립하였고 인물묘사에서 의상, 메이크업, 디자인, 헤어스타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2.1.2 피렌체의 지리적 특징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듯 로마인에게 도로는 군사력이었다. 북부 이탈리아와 로마의 사이에 위치한 아르노 계곡에서 뻗어나가는 도로들 중 B.C.2세기경 건설된 카시아 가도에 중심부락이 형성된 것이 피렌체의 시작이다. 현재 이탈리아는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개의 주로 이루어져있다. 헌법상 5개주는 역사적 배경, 민족, 언어의 특성 등을 감안해 자치권을 강화한 특별주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인 시칠리아, 사르데냐, 북부 국경지역의 발레 다오스타, 프리울리 베네지아 줄리아, 아디제가 그것이다.

중부의 지중해 쪽에 넓게 면하고 있는 지방이 바로 토스카나로 이 지방의 중심 도시인 피렌체라는 이름의 기원중 하나는 봄의 여신인 플로라를 찬양하는 루디 플로랄레스 기간에 세워져서 붙은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지역에 백합이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시저 시대부터 ‘꽃피는 마을’, 즉 ‘플로렌티아’라는 이름이 붙었다. 영어로는 ‘플로렌스’라는 예쁜 이름이 된 피렌체의 상징은 ‘백합’이 되었고 화폐의 이름인 플로린의 뒷면엔 백합이 새겨졌다(민혜련, 2013).

12세기의 피렌체는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이 계속 되었고 직물은 프랑스와 플랑드르에서 수입을 하고 염료는 동방에서 수입을 했다. 피렌체의 젖줄이었던 아르노 강가는 지금도 상업으로 북적이고 있다. 이 강가에서 피렌체인 들은 뛰어난 솜씨로 직물을 가공, 염색하여 다른 도시에 비싼 값에 되팔아 부를 축적하고 더 붙어 금융업도 발전한다. 자치 도시 초기에는 소 영주들이 주된 역할을 했으나 수공업, 금융, 상인 등 신흥 부자들이 부르주아계층으로 떠오르며 이질적인 두 집단의 모임은 내부의 분열로 이어져 도시가 양분되는 사태로 치닫는다.

14세기에 메디치가가 정권을 잡으며 비약적으로 발전한 피렌체는 흑사병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하지만 큰 타격을 입진 않았다. 전제정치를 실시했던 국부 코시모 데 메디치는 아버지 대에 시작한 가문을 정상으로 올려놓았고 공직자 임명권을 휘두르며 정부를 통제했다. 코시모의 권력 뒤로 손자 위대한 로렌초의 시대인 15세기 중반까지 르네상스 예술과 인문주의는 활짝 꽃을 피우게 된다. 피렌체처럼 작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정치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들은 은행업과 직물공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예술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유명한 학자, 예술가들로 하여금 ‘아카데미 플라토니카’를 창설하여 고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를 부활시켰다.

외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피렌체는 일찍이 도시도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인류에게 큰 유익을 끼친 도시이자 르네상스를 일으킨 힘으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을 누리는 업적을 자랑하고 있다. 이리어트(Yriarte)가 말하기를 피렌체는 생각으로 사는 모든 이의 어머니(최선미, 김상근, 2008)이므로 우리는 피렌체를 소중히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피렌체의 큰 매력은 현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용하고 숭고한 분위기다. 단테, 기베르티,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다빈치, 도나텔로 등이 살았던 이곳은 예술과 문학, 회화, 조각, 건축과 시, 당대의 학문과 과학의 탁월함을 만들어낸 곳이다. 수없이 늘어선 조각상들에 깃든 숭고함과 예술, 과학에 따른 유명 인사들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이토록 여러 세대에 걸쳐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모든 것을 형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던 가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렌체의 모든 예술의 보고를 그대로 보존했던 이들은 산 로렌초 성당에 묻혔다. 이 성당 뒷부분에 조상들의 묘로 건축한 건물이 있는데 예술의 걸작들과 웅장함은 온 세계 사람들의 발길을 잇는 명소로 만들었다. 피렌체가 지닌 매력 중 하나는 과거를 되살려내는 활력이며, 예술, 문학 등 어느 도시도 넘볼 수 없는 지도력을 발휘했던 피렌체는 뛰어난 지도력을 갖게 한 사람들의 기념물로 가득하다.

돈을 사랑했지만 그 보다는 주된 관심사가 예술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강했기에 이 분야에 불후의 이름들을 끊임없이 낳고 유럽문화를 이룩하는 데 앞장 서게 되었다. 피렌체에서 자라난 열매는 무엇보다도 예술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림 1] 피렌체 전경

(출처 : <http://blog.naver.com/hr31027/220159689260>)

2.1.3 길드(Guild)

서로마 제국의 멸망 뒤 혼란의 시기가 끝나자 원거리 무역을 하던 상인들은 봉건 영주들과 도적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결을 해야만 했고 10~16세기까지 수공업자나 상인들이 자신의 권리와 기술보호를 위해 결성한 조합이 바로 길드다. 이 길드는 중세 후기인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경제 사회 구조의 기능을 담당했다. 상공업자들은 농업과는 달리 봉건적 제도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해야 이익을 보는 집단이다(민혜련, 2013).

초기엔 우애적 성향의 자발적 결성이 정치적 색채까지 띠게 되어 13세기이후는 길드의 전성시대가 열렸고 봉건주의 유럽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판매 쪽을 담당하던 상인길드는 상인의 이익과 안전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취급하는 상품이나 직종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수공업 길드는 인력을 수급 받고 자신들의 기술을 비밀로 보호하고 전수하는 것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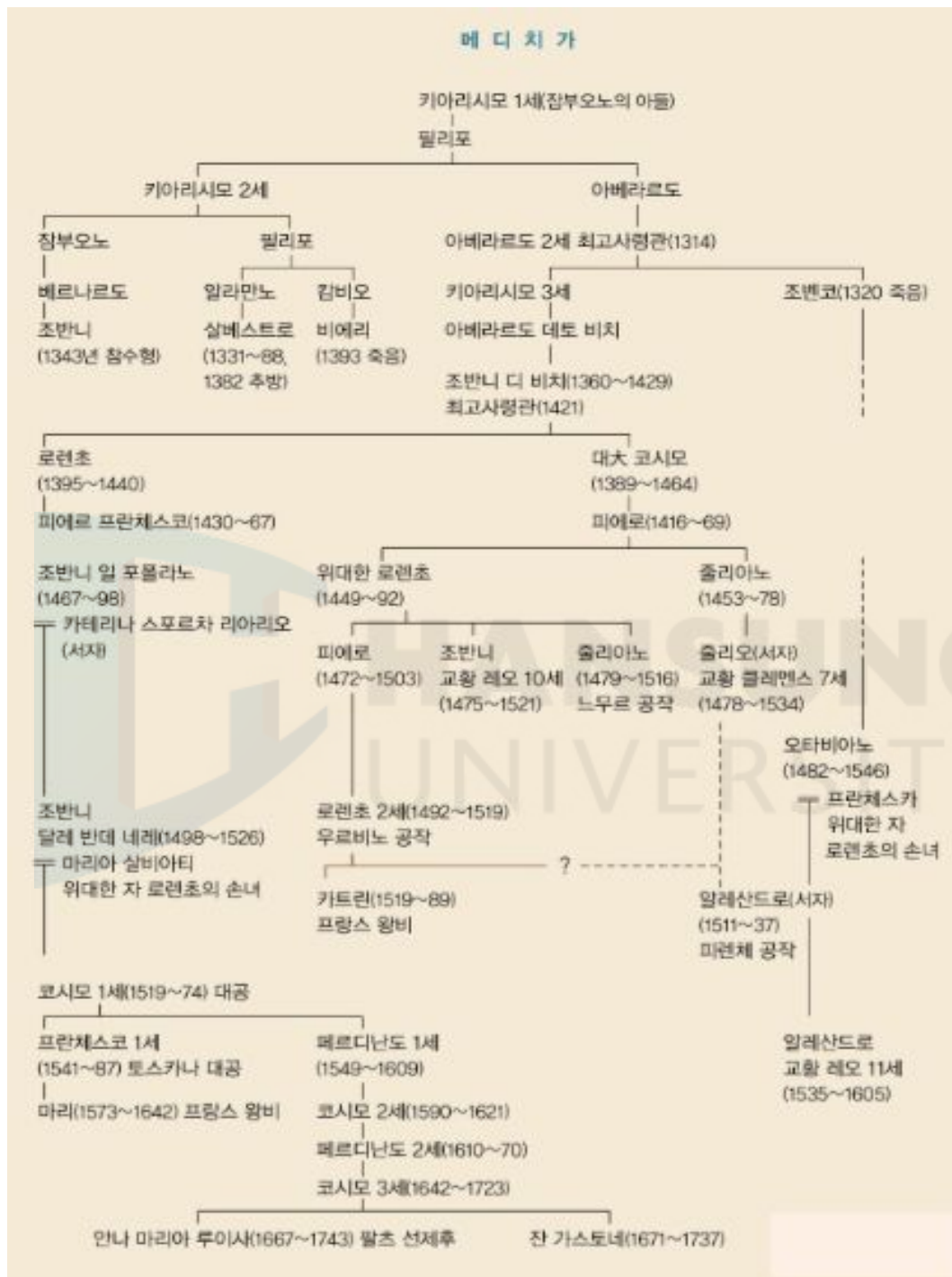
하게 생각했다. 처음엔 행상인들의 모임이었으나 분업화, 조직화된 상업 활동을 하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생기고 힘 있는 대표들은 자치권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외국 상인들도 길드를 통해야만 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

14세기 르네상스가 무르익던 시기엔 메디치 가문처럼 상인 길드안의 유력한 가문들이 도시를 지배했다. 생산 쪽을 담당하던 수공업 길드는 도시에서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생겼고 기능공 계층이 이에 속했다. 장인들은 숙식제공을 받으며 기술을 익히고 수습기간을 지내야 임금을 받는 도제와 직공을 거느리고 있었다. 수공업 길드는 엄격한 위계질서의 사회였고 기술 교육의 장이다.

예술이나 건축도 수공업 길드의 하나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 빈치도 수공업자의 신분으로서 도제부터 시작하여 장인의 위치에 올랐던 것이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길드가 사라졌다. 이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상인들은 거대기업으로 변모하고 점점 공업화되는 수공업은 장인들을 임금 받는 공장 감독으로, 도제는 노동자로 변화시켰다.



2.1.4 메디치 가문 가계도



[그림 2] 메디치 가문의 계보

(출처 : <http://blog.naver.com/sjj6201/90193512791>)

15세기와 16세기는 역사와 예술 두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였고 유럽의 정치 세력이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나폴리 등의 이탈리아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북부 국가들로 옮겨간 시기이다. 이탈리아의 중부지방 피렌체공화국에서 가장 유력하고 영향력이 높았던 시민 가문이며 공화국의 실제적인 통치자였고 학문과 예술을 후원하여 르네상스시대가 피렌체에서 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메디치 가문이 역사에 기록된 것은 12세기부터다. 13세기 후반의 기록에는 환전상으로 일했다는 언급이 있다(김상근, 2011). 14세기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환전상이었으나 15세기 초부터 유력한 기업가로 부상했고 원래는 평범한 중산층 가문이었으나 은행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면서 유명해진 가문이다. 메디치 가문이 역사에 드러난 때는 1400년부터이며 이때부터 1748년까지 약 350년간 지속되었는데 당시 피렌체의 산업은 모직상 길드와 직물 교역 길드가 주도적이었다. 알비치 가문의 주도로 해로가 개척되어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피렌체 모직산업 발전의 분기점이 되었다. 1397년 메디치 은행과 더불어 모직공장 인수, 모직상 길드에 가입한 것이 메디치가문의 모태가 탄생된 것이다.

1400년으로 접어들면서 르네상스가 탄생하고 예술의 각 분야에서 천재들이 배출되었다. 은행가와 상인 신분에서 유럽 최고의 가문이 되어 국가의 핵심부에 메디치 가문 사람이 포진할 정도가 되었다. 근대적인 은행을 세우고 유럽 금융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재정적 후원을 통해 맺어온 교황과의 밀착 관계도 한 몫을 했다. 이들은 단순히 가문의 이야기가 아닌 유럽의 이야기가 될 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고 학문 부흥과 예술의 후원에 적극적이었던 그들은 회화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라 안젤리코, 길란다요, 고출리, 로렌초 디 크레디, 조각에서는 기베르티, 베로키오,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건축에서는 브라만테, 브루넬레스키, 미켈로초 등을 후원했다.

메디치가문은 정치력과 경제력, 상업과 농업지식, 학문성과 예술적 취향등 상이한 분야들에서 비범한 능력을 나타냈다. 외모는 초상화를 보면 알 수 있듯 그리 출중하지는 못했다. 노력과 행운이라는 양면을 지녔고 인류의 항구적 유익을 위한 사업을 일구었다는 점과 입신과정이 경이로웠다는 점, 쇠퇴와 몰락이 비루한

메디치가문의 이 역사는 3백여 년이 넘는 동안 연출된 한 편의 대작을 관람하는 것과 같다.

1400년 메디치가는 평범한 중산층 가문이었고 이 계열의 수장은 조반니 데 메디치였다. 은행가 가문이었던 이들은 조반니의 탁월한 사업 수완으로 상당한 부를 소유했고 무역의 성공으로 가문의 부를 만들기 시작한 증조부는 시공화국 수반인 곤팔로니에레를 지냈고 아버지의 친사촌들 중 둘이 곤팔로니에레를 역임했다. 공직 생활 보다는 다른 면의 명성을 얻었던 그는 평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귀족들과 맞서 싸웠고, 1378년에 이르러 가문의 한사람인 살베스토로는 피렌체 시의회에서 평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경한 연설을 하여 방직 노동자 길드인 치옴피의 반란을 촉발시켰다. 귀족들을 견제하고 평민들을 옹호했던 전통을 물려받은 조반니 디 비치는 이 때부터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문을 세우게 된다.

메디치 가문의 출발은 1397년 이탈리아 피렌체에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가 메디치 은행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조반니가 죽고 그의 아들 코시모 데 메디치가 뒤를 이었으나 메디치 가의 독주를 견제하는 피렌체의 귀족들과 대립하여 수년 동안 추방을 당하였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다시 피렌체로 복귀하여 민중의 지지와 상업 자본에 힘입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피렌체 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부(國父)’의 칭호를 받았고 유럽의 16개 도시에 은행을 세우는 한편, 교황청 자금의 유통을 맡아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막대한 사재를 시정에 투입하고 학예를 보호하고 장려하였다. 그를 통해 미켈로초, 도나텔로, 프라 안젤리코, 기베르티, 도나텔로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후원을 받았으며 르네상스의 걸작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메디치가의 사람들은 대대로 미술 학예를 애호하였는데 코지모와 그의 손자 로렌초는 많은 미술가와 학자를 후원하여 학예를 장려했고 코지모 1세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피사대학의 개축에 전력, 그로 인해 피렌체는 유럽문화의 중심, 문예부흥 운동의 요람이 되었다. 코시모의 손자인 로렌초 데 메디치(1449~1492, 일명 로렌초 일 마그니피코)는 위대한 자로 칭송되었으며 이때에 피렌체와 메디치가의 번영은 정점에 달하였고 그는 뛰어난 외교수완으로 피렌체가 이탈리아 정치의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피렌체의 르네상스문화가 최고조에 이른 것도 이

때인데, 인문주의적 교양을 폭넓게 지녔던 그는 학예, 특히 철학 연구를 장려하였지만 메디치가에 대한 귀족들의 견제도 심해졌으며 독재자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여러 번의 암살 기도로 위협을 받기도 하였는데 피렌체공화국의 주도권을 노리던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주도하여 일어난 파치 가의 음모로 결국 그의 동생 줄리아노가 암살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메디치 가문의 지배력은 더욱 견고해졌고 학문과 예술에 대한 장려와 보호를 위해 자금을 아끼지 않았다. 수많은 고전 문헌들을 수집하여 그리스 아카데미를 피렌체에 설립하였고 주변국의 학자들은 피렌체로 모여들었다. 또한 베로키오는 로렌초를 위해 작품을 제작했고, 레오나르도다빈치는 로렌초에 의하여 선발되어 위대한 화가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고,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로렌초의 후원과 지원으로 예술 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로렌초의 뒤를 이은 아들 피에트로는 불행한 자로 불렸는데 프랑스왕 샤를 8세의 침입을 받고 이에 굴복하자, 시민들은 반발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공화국에서 추방되었고 그들의 궁은 약탈되었다. 피에트로는 피렌체로 다시 복권하기 위해 외국 군대의 힘을 빌려 피렌체를 공격하였지만 실패하였다.

피에트로가 사망하고 동생 조반니가 교황 레오 10세가 되면서 피렌체 가문은 다시 피렌체로 복귀할 수 있었고 이어 교황 클레멘스 7세를 배출하면서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은 다시 부활하였다. 독일의 황제 카를 5세가 교황을 남하(南下)했을 때 잠시 피렌체를 쫓겨난 얼마 후 카를 황제의 힘을 빌려 복귀하였다. 피에트로의 아들 우르비노 공작 로렌초(1492~1519)가 일찍 사망하고 손녀인 카트린 데 메디치가 마지막 적장자로 생존하였는데 프랑스왕 앙리 2세와 정략결혼으로 왕비가 되었으며 프랑스 궁정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네무르 공작 줄리아노의 서자였던 이폴리토가 피렌체 공화국의 통치자로 유력했지만 암살되었다.

교황 클리멘스 7세가 갖은 술수로 피렌체의 공화제를 폐지하고 자신의 아들인 알렉산드로를 통치자로 임명하였지만 알렉산드로는 폭정으로 최악의 인물로 비난받았으며 1537년 1월 5일 결국 로렌치노에게 암살되어 약 190년간 이어진 메디치 가문의 장자 계열의 후손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어서 피렌체의 통치는 먼

친척이자 조반니의 차자계 후손인 코시모 1세가 1569년 토스카나 대공이 되었으며, 그의 아들 프란체스코는 과중한 세금을 거둬들여 경제를 거의 파탄지경에 몰고 갔으나 예술과 과학을 후원했던 업적은 평가받는다. 그 후 차차 세력이 쇠퇴하여 1737년 7대째 대공 잔 가스토네의 죽음으로 메디치가의 혈통은 막을 내렸다. 그 뒤로 안나 마리아 데 메디치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작고함으로써 가문은 끝이 나고 만다.

총 34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유럽 최고의 부자가문으로 르네상스 최고의 후원자로, 16세기에 교황 레오 10세와 클레멘스 7세로 교황을 두 명 배출, 프랑스 왕실에 카트린드 메디치, 마리아 데 메디치를 시집보내 왕실 가문이 되었다. 메디치는 한 가문의 이름이라기보다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문학과 과학, 예술에 대한 후원과 관심, 근대사회의 문화적 근간이 된 르네상스는 메디치 가문이 있었기에 빛날 수(김상근, 2011)있었다. 메디치 가문 시대엔 가문의 후원을 받고 정치에 참여한 인문학자들의 요구가 작품으로 등장하고 상인들의 정치적 욕망이나 명예욕이 작품에 드러나는 것이 르네상스 예술의 특징이라(성제환, 2013)하겠다.

21세기 피렌체 시민들은 메디치 가문이 남긴 막대한 유산인 우피치 미술관, 피티 궁 박물관에 소장된 예술품을 보기위해 모여드는 관광객들과 예술 애호가들에 의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디치의 마지막 후손인 안나 마리아는 모든 예술품들을 피렌체 바깥으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부 피렌체 시민들에게 기증했는데 이것이 메디치 가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2.1.5 메디치 가문의 중심 인물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 (Giovanni di Bicci de' Medici, 1360~1429)는 경제적 감각이 남다른 뛰어난 사업가였고 고리대금업과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금화를 쌓아둘 수 있었고 많은 지참금을 들고 온 젊은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그의 아내 피카르다 웨리와 코시모, 로렌초의 두 아들과 살았는데 품위와 온유한 성격,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중년 남성이었고 예술장려에 여러 가지 중요

한 사업을 벌인 사람이다. 공익사업에 따른 재산 기부에 인색하지 않았고 항상 평민 편에 서서 귀족들과 투쟁해 온 태도도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1401년 무서운 흑사병이 돌아 도시가 황폐해질 무렵 이 재난을 극복하고자 피렌체 시의회는 신께 드릴 예물로 산 조반니 바티스타 성당에 정교한 두 짝의 청동문을 제작하여 봉헌하기로 결정했고 사업자 선정에 관한 결정권자로 조반니를 임명했다. 이런 현저한 역할을 맡게 된 일은 특히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17년 동안 착실히 공무를 수행했고 술한 정치적 음모와 거리를 두었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지만 명예와 관직을 얻었다. 조반니는 1428년 예순여덟의 나이로 사망했고 아들 코시모와 로렌초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겼다. 생시에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애써준 하층민들은 그를 사랑했고 많은 고생을 해가며 작품 활동을 했던 예술가들은 도움의 손길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그를 기억했으며 귀족들 또한 그를 존경했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인격을 이렇게 말한다. “그는 정치에서 명예를 구하지 않았으면서도 정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명예는 죄다 누렸다. 고위직에 있을 때 그는 모든 이에게 친절했다. 웅변에 뛰어나지는 않았으나 신중한 점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조반니는 기베르티, 브루넬레스키, 도나텔로, 마사초가 주도한 운동을 도왔다(G.F.영·이길상, 1997).

코시모 데 메디치 (Cosimo di Giovanni de' Medici, 1389~1464)는 조반니가 죽고 그의 아들 코시모 데 메디치가 뒤를 이었으나 메디치 가의 독주를 견제하는 피렌체의 귀족들과 대립하여 수년 동안 추방을 당하였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다시 피렌체로 복귀하여 민중의 지지와 상업 자본에 힘입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피렌체 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부(國父)’의 칭호를 받았다. 그는 유럽의 16개 도시에 은행을 세우는 한편, 교황청 자금의 유통을 맡아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막대한 사재를 시정에 투입하고 학예를 보호하고 장려하였다. 그를 통해 미켈로초, 도나텔로, 프라 안젤리코, 기베르티, 도나텔로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후원을 받았으며 르네상스의 걸작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단순하고 고전적인 방식을 좋아한 그는 로렌초 성당의 설계를 브루넬레스키와 도나텔로에게 맡기고 회화에서도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을 선호했다고(이은기, 2002)한다.

콘테시나 데 바르디아와 결혼을 했고 학문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그는

1429년에 가업을 승계했는데 아버지 조반니가 탁월한 사업가였다면 코시모는 탁월한 지도자였다. 아버지보다 국정에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잠재력을 보여주었고 피렌체 최고의 기업가이자 정치적 운명을 책임진 정치가였다. 이 무렵 유럽의 16개 수도에 설립한 은행 수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나 당시 피렌체 귀족 가문의 모함으로 투옥과 추방의 시련을 겪었다. 그는 유능한 경영자였고 난세를 헤쳐 나갈 혜안을 가진 정치가였으며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예술장려, 학문의 발전, 구호소 지원 등 다양한 일을 했고 무엇보다도 깊이 있는 학자였다. 학문 자체를 사랑했고 동방의 희귀하고 중요한 사본들을 찾아다니며 모은 자료들은 그가 설립한 도서관의 기반이 되었다. 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했으며 학문 발전을 위해 많은 방법을 모색했다. 전문 학자들의 후원과 창조적인 예술가를 지원하였고 본인의 삶 또한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려 했던 인문경영자였다. 코시모는 초월적 사고, 감성적 직관, 창조적 영감이 가득한 플라톤 철학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기번(Gibbon)은 그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코시모는 이름과 나이가 학문 부흥과 동의어와 다름없는 군주들의 아버지였다. 그의 신용은 명성으로 승화했고, 그의 부는 인류 봉사를 위해 바쳐졌다. 그는 카이로와 런던과 서신 왕래를 했으며, 인도의 향료와 그리스의 서적을 종종 한 배에 실어 수입해 왔다(G.F.영.이길상, 1997).” 예술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던 그는 리피, 조각가 기베르티, 도나텔로, 화가 프라 안젤리코, 건축가 브루넬레스키, 미켈로초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피렌체 시민들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 군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코시모는 국부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마키아벨리는 코시모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한다.



[그림 3] 코시모 데 메디치

(출처 : wikimedia commons)

“그는 대단히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중후하고 예의바르고 덕망 넘치는 외모를 갖고 있었다. 초년은 고통과 유배와 신변 위협 속에서 지냈으나, 지칠 줄 모르는 관대한 성향 탓에 모든 정적을 누르고, 백성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거부였으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은 검소하고 소탈했다. 당대에 그만큼 국정에 통달한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그렇게 변화무쌍한 도시에서 그는 30년간 정권을 유지했던 것이다.”(G.F.영.이길상, 1997, P.102)

피에로 디 코시모 (Piero di Cosimo de' Medici, 1416~1469)는 루크레치아 토르나부오니와 결혼하여 두 아들 로렌초와 줄리아노가 있다. 피에로는 역사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 코시모가 죽자 피렌체의 통치권을 물려받았으나 통풍으로 어린 시절부터 늘 고생을 했고 병약한 몸 때문에 큰 지장을 받아 국정을 수행치 못해 동생 조반니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피에로는 아버지와 동생에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을 만큼 인품이 반듯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는 역량 있는 학자로 외교 임무를 띠고 파견된 나라들로부터 상당한 평가를 받았고 특히 피에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루이 11세는 그가 수장이 되던 때 프랑스의 백합 문양을 메디치가 문장의 구 중 하나에 찍도록 허용하는 영예를 부여했다. 피에로는 학문과 예술에 대한 관심이 컸기에 30년 동안 폭 빠져 지냈다. 아버지처럼 희귀 사본들을 수집하고 가치 있는 장서를 많이 보했으며 특히 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이었다. 루카 델라 로비아,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베노초 고촐리, 산드로 보티첼리 등을 후원하였다. 마키아벨리는 그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 폭력과 과시를 싫어했다. 하지만 동족들은 그의 선량함과 덕성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았다. 그렇게 된 주된 원인은 아버지 코시모가 죽은 뒤 몇 년 동안 정치 불안과 끊임없는 병약에 시달린 데 있었다. 폭력을 혐오하던 그는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불거져 나왔을 때 폭력을 조금도 쓰지 않은 채 즉각 반란을 진압했고, 정적들을 돌려 놓으려고 노력했다. 국내 정치와 파벌경쟁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대외 정치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자기 도시보다 외국 궁정들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G.F.영.이길상, 1997, P.132)

이탈리아의 국부라 불리고 피렌체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코시모 데 메디치의 맏아들이다. 아버지 임종 후에 5년밖에 살지 못해 혈통의 연결고리로만 소개되는데 화가 베노초 고촐리, 보티첼리 후원을 했다. 장남 로렌초를 로마 명문가의 규수인 클라리체 오르시니(1453~1487)와 결혼시켰다.

위대한 자 로렌초 (Lorenzo di Piero de' Medici, 1449~149)는 클라리체 오르시니와 결혼을 해 그의 누이 마리아, 루크레치아, 비앙카와 각각 레오폴토 로시, 베르나르도 루첼라이, 구글리엘모 데 파치와 결혼을 했고 동생 줄리아노가 있다. 아버지 피에로가 죽었을 때 그는 21살의 청년이었다. 1478년 로렌초와 줄리아노를 살해하려던 파치가문의 습격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주도권쟁탈 경쟁이 매우 치열했으며 이 경쟁에서 승리하여 실권을 장악했고 1492년 그가 죽기까지 평화 시기를 누렸으며 메디치가의 전성기를 누릴 수(이은기, 2002)있었다.

로렌초에 이르러 가문의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고 정치가로서의 판단, 정치적 혜안과 기민한 결정, 고전 저자에 대한 깊은 지식, 예술적 취향과 비평 지식, 농촌 생활에 대한 지식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 위대한 자라는 칭호는 대중의 의견에 따라 부여되었고 피렌체를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끌어올리며 예술적 수도로서 절정에 세우는 등 애를 많이 썼으나 독재정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당시 상황이 독재 형태의 정부가 유일한 발생이라고 확인했으나 권모술수를 일삼는 군주들은 따르지 않았다.

마키아벨리는 로렌초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그는 공화국을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다스렸고, 다른 나라의 여러 군주들에게 대등한 인물로 인정을 받았다. 특이하게도 군사적인 재능은 없었으면서도 외교 역량으로 여러 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어느 군주도 견줄 수 없는 문학과 예술 후원자였고, 관인대도의 품성과 그 밖의 호감을 살 만한 덕성들로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신의 정치적 재능들로 피렌체를 이탈리아의 지도급 국가로 만들었고, 그 밖의 투쟁들로 피렌체를 이탈리아의 학문과 예술과 유행의 중심지로 만들었다.”(G.F.영.이길상, 1997, P.149). 로렌초가 쓴 시는 다음과 같다. “젊음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그건 덧없이 날아간다. 즐거운 사람은 마음껏 즐겨워하라. 내일도 즐거우리라는 보장이 없으니.“”(G.F.영.이길상, 1997, P.153)



[그림 4] 위대한 자 로렌초

(출처 : 르네상스, 민혜련, 2013)

레오 10세 (Leo X, 1475~1521)는 위대한 자 로렌초 데 메디치의 둘째 아들로 1513년 5월 11일에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쉬게 살려는 욕구와 무리수를 모르는 상식 때문에 사촌 클레멘스 7세와는 달리 큰 사건들의 중심축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교황으로 재위한 9년 동안 문필가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고 강한 상식과 선량한 성품을 지닌 그를 두고 에라스무스는 친절과 인간미, 관인대도와 학식, 후덕한 대인관계, 평화와 순수 예술에 대한 사랑을 칭송했다. 가문의 미래를 확고히 다져놓는 일에도 착수를 했는데 친사촌 줄리오

데 메디치, 튀지 로시를 추기경으로 임명했고 조카인 인노첸시오 치보, 조반니 살비아티, 니콜로 리돌피도 추기경으로 세웠다.



[그림 5] 레오 10세

(출처 : 두산백과)

줄리오 데 메디치 (Giulio de' Medici, 1478~1534년)는 사촌형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되고 레오 10세를 이은 차기 교황이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교황이 되었다. 줄리아노가 몰래 낳은 아이인 줄리오는 후대 학자들이 ‘무거운 납으로 만든 신을 신고 있었다’고 묘사할 정도로 우유부단했다고 한다. 교황이 저지른 큰 실수는 강대국으로 부상한 프랑스왕인 프랑수아 1세와 신성로마제국황제 카를 5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교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카를 5세는 교황을 믿지 못하고 로마를 침략했고 이로써 교황청은 철저히 약탈당했다. 추락한 교황청의 만회를 위해 피렌체의 산 로렌초 성당에서 메디치 가문의 영묘를 제작하던 미켈란젤로를 불러들여 “당신이 꿈조차 상상하지 못한 것을 그려보라”는 주문을 하게(성제환, 2013)된다.



[그림 6] 클레멘스 7세

(출처 ; <http://ko.wikipedia.org>)

카트린 드 메디치 (Catherine De Medicis, 1519~1589)는 교황 레오 10세의 조카딸로 14살에 프랑스의 앙리 왕자와 혼인을 했다. 레오는 막대한 지참금을 내걸었으나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카트린은 지적으로는 열등하지만 신분상으로는 훨씬 월등했던 앙리 2세를 몹시 연모했으나 자녀를 낳지 못해 고생하다 결국 10명을 낳았고 앙리 2세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자 그녀의 장남이 프랑수아 2세로 즉위를 했다. 타고난 정치적 감각을 타고났으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엔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김복례, 2006) 없었다.

평소 이탈리아를 흠모했던 프랑수아 1세의 의지로 카트린은 프랑스 왕가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카트린의 삼촌인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프랑수아 1세의 둘째아들 앙리와의 결혼을 결정하고 막대한 지참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끝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결혼 당시 카트린이 데려간 이탈리아의 요리사들은 식사 예절과 함께 프랑스 요리의 시발이 되기에 충분했다. 카트린은 그리스어와 수학에 능하고 활달하고 밝은 성격에 프랑수아 1세와 그의 누이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갑작스런 프랑수아의 사망으로 갑자기 왕태자비가 된 카트린에게 프랑스의 여론은 지극히 적대적이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 폐위 문제까지 거론되었으나 샤를 9세, 앙리 3세, 마고로 유명한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등 모두 10명의 자식을 낳았다. 프랑수아 1세 사망 후 앙리 2세가 즉위하면서 카트린은 프랑스의 왕비가 된다. 프랑스로 오기 전부

터 디안 드 푸아티에는 앙리 2세의 정부였고 카트린은 그 이유로 이름뿐인 왕비였었다. 그럼에도 앙리 2세를 깊이 사랑했고 그의 선심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마상시합을 하다가 앙리 2세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급사를 하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카트린은 죽을 때까지 검은 상복을 입었다. 아들 프랑수아 2세가 즉위하였으나 일찍 죽고 샤를 9세를 거쳐 앙리 3세가 즉위한 이후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였고 카트린은 협상을 통해 많은 성과를 보였으며 가장 뛰어난 성과는 외교정책이었고 앙리 3세를 폴란드의 왕으로 즉위시켰다.



[그림 7] 카트린 드 메디치

(출처 <http://blog.naver.com/zigsew/220139768165>)

마리 드 메디치 (Marie de Medici, 1573~1642)는 피렌체의 메디치가 출신으로 토스카나 대공의 딸이자 루이 13세의 어머니, 앙리 4세의 후처로서 정치적 야망이 강한 권모 술수가였다. 왕이 죽자 섭정을 하였고 이탈리아 출신의 콘치니와 그의 아내 갈리가이의 힘을 빌려 전왕의 구신을 멀리하였고 1614년 삼부회에서는 리슐리외의 재능을 발견하고 고문관으로 발탁했다.

그러나 1617년 루이 13세에게 정권을 빼앗겨 아들인 왕과 끊임없는 항쟁을 계속하던 와중에 리슐리외를 적대시하여 그의 추방을 계획했으나 성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블루아로 추방된다. 토스카나 대공 프란체스코 1세와 오스트리아인 대공비 요안나의 딸이자 토스카나 초대 대공 코시모 1세의 손녀였다. 그녀의 아버지 프란체스코 1세는 국정보다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결혼 전부터 베네치아 여성인 비앙카 카펠로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아내 요안나는 불행한 결혼 때문에 동정을 받긴 했으나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상대와 결혼했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으므로 거만한 오스트리아인이라 불리며 백성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결혼 후 13년 만에 요안나가 죽자 비앙카와 재혼했다. 프란체스코 사망 후 동생 페르디난도가 뒤를 이었고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도록 지원을 했고 앙리와의 돈독한 친분을 원하는 페르디난도에게 진 막대한 부채를 경감하려는 앙리의 생각이 일치해 마리아를 앙리에게 시집보낸다. 카트린의 지참금도 엄청났지만 마리아의 지참금은 역대 프랑스 왕비들 중 최고였다고 한다. 마리아는 그리 지혜롭지는 않았으나 그녀의 금발과 크림같이 하얀 피부색은 앙리를 매혹시켰다고 한다. 그의 바람기는 잘 알려진 바 마그리트와는 달리 앙리를 매우 사랑했으며 왕과의 다섯 자녀를 두었고 앙리 사망 후 섭정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권력위임 후 왕권 실추와 함께 블루아에 유배된다. 자신이 후원했던 화가 루벤스의 도움으로 삶을 살다 불행한 생을 마친다.



[그림 8] 마리 드 메디치

(출처 : <http://café.daum.net/500chosun>)

2.1.6 메디치 가문이 후원한 미술가

피렌체 등의 여러 도시에서는 지배자나 부유한 상인들이 다투어서 학자나 예술가를 후원함으로써 이를 더욱 촉진시켰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후원자가 바로 메디치 가문이다. 조반니 비치는 1418년 브루넬레스키와 도나텔로에

게 산 로렌초 성당의 내부설계와 조각을 맡겼고 아들 코시모는 자신의 궁을 르네상스 방식으로 짓도록 했다. 코시모의 아들 피에로는 베노초 고촐리에게 동방박사의 행렬을, 피에로의 사촌 피에르프란체스코는 보티첼리에게 봄, 비너스의 탄생을 주문하였다. 로렌초 일 마니피코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여 후원했다고 한다. 로렌초의 아들이자 교황 레오 10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줄리아노와 조카 로렌초의 무덤을 제작케 했다. 코시모 1세는 바사리를 미술고문으로 베키오 궁을 제작케 하고 우피치를 짓는 등 건축, 미술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르네상스 미술을 가능하게 한 메디치는 막대한 돈을 들여 성당을 짓고 그들의 궁에 역사이야기를 그리게 한 목적엔 가문의 사회적인 지위를 상승시키고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함께 했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o da Vinci, 1452~1519)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발명가, 조각가, 기술자, 해부학자, 지리학자, 음악가로 그의 천재성은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대표하는 전형으로 기억된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기에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인 베르키오에게 아들을 맡겼다. 초기에는 대부분을 밀라노의 공작 루도비코 일모로에게 봉사했으며 후에는 로마, 볼로냐, 베네치아 등을 옮겨 다니며 작업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뿐만 아니라 수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학문과 음악 등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해부학을 비롯해 자연현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습득하였으며 사실적 표현기법, 관찰력, 자연에 대한 과학적 접근, 자연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인간신체의 수학적 해부학적 접근으로 그는 15세기 르네상스 화가들의 사실기법을 집대성하여 명암법을 완성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손, 섬세함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고 강함과 부드러움에 똑같이 능했다. 미술가들이 추구하던 사실주의를 집대성하여 원근법을 완성하였다. 멀어지면 작아지는 선 원근법, 색채원근법, 소멸 원근법으로 사실주의를 넘어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표현했다.



[그림 9] 레오나르도 다빈치
(출처 : 르네상스, 민혜련, 2013)

미켈란젤로 (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 1475~1564)는 조각가로서 세계를 파악한 그는 인체만이 묘사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여겼고 그의 관심을 끈 것은 확고한 형식이었다. 그가 지닌 형식 파악 능력과 내적인 표상의 명료함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그의 드로잉 실력은 사물을 꿰뚫는 특성이 있다 (하인리히 뵐플린, 안인희 옮김, 2002).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선종하고 그뒤를 이은 교황 파울루스 3세는 최후의 심판의 밑그림을 보고 시스티나 성당의 벽면을 장식해 달라고 주문한다.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영묘 작업에 필요한 선금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거절했다. 화가 난 교황은 “이것은 나의 30년 숙원사업이다. 교황이 된 지금도 나의 숙원을 충족하지 못하겠느냐! 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교황의 양보로 미켈란젤로는 작업을 시작했고 8년 후 시스티나 성당의 벽면에 드리워진 커튼을 걷어내자 정교하게 묘사한 거대한 작품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작품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다 (김영미, 2014).



[그림 10] 미켈란젤로
(출처 : 르네상스, 민혜련, 2013)

라파엘로 산치오(Raffaello Sanzio, 1483 ~ 1520)는 이탈리아 우르비노에서 화가이자 지성인인 지오반니 산티의 아들로 태어났다. 젊어서부터 조형과 빛, 감정 문제까지 두루 연마하였다. 1504년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있는 피렌체로 이주하였다. 1508년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아 로마로 간 그는 프레스코 연작을 제작하기 시작하여 수많은 작품을 제작했다. 로마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로마에 오자마자 번덕스러운 율리우스와 교황청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의 권위는 날로 높아졌다. 교황청의 건축과 회화, 장식 등 미술 분야에 관한 감독 책임을 맡고 있던 라파엘로는 37세의 생일에 갑자기 죽게 된다. 그의 위대함을 알아보고 추기경 직위를 내리려 했던 교황 레오 10세는 라파엘로가 죽자 그를 애도하며 국가 장례를 치르게 한다. 로마의 판테온에 묻혔다. 회화기법은 우아함이 특징이다. 스승인 피에트로 페루지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부드러운 인물표현과 풍부한 색상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초상화에 있어서 혁신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라파엘로
(출처 : 르네상스, 민혜련, 2013)

티치아노 (Tiziano Vecellio, 1488-90 ~ 1576)는 북이탈리아 피에베 디 카도레에서 이탈리아의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에 활약했던 화가로서 베네치아파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화가로 손꼽힌다. 1513년 산 사물엘레에 자신의 작업장을 열고 유럽 전역에서 찬양을 받는 화가로 발전했다. 1533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고 그의 궁정 화가로 임명되었다. 동시대 사람들에로부터 ‘별 가운데 있는 태양’이라고 불렸던 그는 646점의 작품을 통해 그가 살았던 시대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정도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화가이다. 티치아노는 색채 우위의 전통을 따른다. 그의 교묘한 색채사용은 그림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드로잉에 대한 감각도 매우 뛰어났다고 (허은경, 2003)한다.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Filippo Brunelleschi, 1377~1446)는 “건축이 여러 세기 동안 길을 잃고 헤맨 끝에, 새로운 형식의 건축을 창안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정도로(성제환, 2013) 창의성이 뛰어난 건축가이다. 달걀을 바로 세웠다는 일화의 원조다. 오늘날 피렌체의 명물인 대성당의 팔각형 돔을 완성한 건축가로 유명하다. 1420년 조반니의 주문으로 산 로렌초 성당에 메디치 가문의 영묘가 건축됐다.

도나텔로 (Donatello, 1386~1466)는 피렌체 대성당을 위해 청동 조각상 다비드를 만든 조각가로 유명하다.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가가 제작한 성 마르코 조각상을 보고 “이 성인이 설교하는 복음을 거부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격찬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는 메디치 가문의 수장이 된 코시모와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코시모의 표정이나 극히 작은 암시만으로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고 한다(성제환, 2013).

메디치 가문의 영묘가 있는 산 로렌초 성당에 조반니의 무덤 석관을 제작하는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코시모와 사후에 나란히 산 로렌초 성당 지하에 묻는 특혜를 누린다.

프라 안젤리코 (Fra Angelico, 1387 ~ 1455)는 수도사 출신으로 어느 누구도 그가 화내는 것을 보지 못해 ‘천사와 같은 수도사’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코시모 시대에는 화가보다 건축가나 조각가로 활동했고 코시모와 같은 고향이라 총애를 받았다. 산 마르코 수도원 내부 장식을 의뢰받고 수도원 성당의 중앙제단에 산마르코제단화를 그리게 된다(성제환, 2013).

산드로 보티첼리 (Sandro Botticelli, 1445 ~1510)는 부모로부터 공부를 워낙 싫어했던 아들을 보티첼리라는 금세공사에게 맡겼다. 그래서 이름도 자연스레 보티첼리로 불리었다. 로렌초와 친분이 있는 수도사의 소개로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주제를 나체로 묘사하는 작품을 주문받았다. 보티첼리는 르네상스전성기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나 미켈란젤로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우울증에 빠져 생을 마감했다. 벌거벗은 여자를 많이 그려 정신과 삶이 무질서했다고 바사리는 비난하기도 했다 (김영미, 2014). 보티첼리가 활동한 16세기 후반의 피렌체는 메디치가를 중심으로 인문학자와 예술가들이 고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활발한 토론으로 학문과 예술이 최고로 발전한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확립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의 대표화가로 자리매김한다 (윤운중, 2013).



[그림 12] 봄 (프리마베라)



[그림 13] 비너스의 탄생

(출처 : The Bridgeman Art Library, 우피치 미술관 소장)

2.2 동시대의 유행적 헤어 스타일

메디치 가문 여성들이 활동했던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는 시대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14세기에는 다양한 방법의 땃은 머리가 유행하였으며 귀 위쪽으로 감아올리는 스타일이 인기가 있었고 땃은 머리를 감아올리는 대신 아래로 늘어뜨리기도 하였다. 가르마는 거의 가운데가르마를 땀고 면, 모를 패드로 사용하기도 하고 깃털을 사용했으며 머리 염색을 많이 했다. 14세기 전반부에 영국은 아이, 처녀, 즉위식의 여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머리를 감추었다고 커닝톤은 전한다. 여성들은 이마를 높고 넓게 보이기 위해 앞쪽 헤어라인의 털을 뽑고 면도를 하였다. 페이지보이(Page boy) 스타일처럼 목선까지 깔끔하게 웨이브가 말리는 형식의 스타일이 유행했다.



[그림 14] 14세기 영국 헤어스타일

(출처 : Richard Corson, Fashions in Hair)



[그림 15] 14세기 이탈리아 헤어스타일

(출처 : Richard Corson, Fashions in Hair)



[그림 16] 14세기 프랑스 헤어스타일

(출처 : Richard Corson, Fashions in Hair)

미용문화사에 따르면 땀아진 머리채를 수직으로 양쪽 관자놀이 위로 치켜 올린 스타일이 유행하였고(정현진외, 2004) 14세기 초상화에 나타난 작품속의 미혼여성들은 머리를 자유로이 떨구고 있었으나 기혼여성은 머리카락을 정돈해서 베일 등을 쓰는 것으로 머리카락을 감추고 있었다. 중세 초기에는 부인네들이 머리에 망토나 린넨, 실크의 천에 가장자리를 레이스로 꿰매어서 그 끝에 수술을 달아 뒤집어썼고 젊은 여자는 머리를 느슨하게 늘어뜨리거나 웨이브를 주고 기혼 여성들은 머리 중앙에서 가르마를 타서 양옆을 땀아 귀를 덮었는데 이것을 양의 뿔이라 하였고 여성들은 금발을 좋아해 황색으로 머리를 염색 후 올리브 기름과 향수를 사용해 향기가 나도록 했다(김옥연 외, 2013)고 한다. 달팽이 모양으로 말아 올리거나 땀아 가발을 사용해서 금 은 보석을 박은 네트 망으로 덮어씌우거나 뒤에다 베일을 만들어 늘어뜨렸다. 망으로 장식한 베일 위에 관을 씌우고 늘어뜨린 뿔이 일반 부녀자들의 외출용이었다(김춘득, 2002). 머리장식으로 사용된 에스코피온은 딱딱한 쿠션 상태의 것을 머리에 둘러서 건사의 네트로 모양 지우고 거기에 금, 은, 진주로 꾸며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이었는데 프랑

스 왕의 애첩 디안 드 푸아티에가 애용하였다고 한다. 크레스핀은 헤어네트라고 하며 굵은 실이나 실크의 끈 또는 금실로 만들어 진 것으로서 머리를 비단 주머니에 넣어서 크레스핀으로 덮고 그것에 진주, 보석 등을 박아서 그 위에 화환을 달았는데 제임스 3세의 왕비 마르그리트는 진주가 가득히 치장된 크레스핀과 호화로운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밖에 헨닌이라고도 하는 에난의 높이는 부에 따라 다양하였으며 베일로 더 높게 하기도 했다. 브레이드는 장식적인 성격을 갖으며 양감으로서의 표현 선 또는 면으로서의 표현 등 여러 가지로 변화 시킬 수 있고 끈을 넣어 따거나 웨이브나 컬과의 구성에 의해 보다 많은 실루엣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머리 수건인 뽀플이 있었다.

중세 여성들의 머리장식과 헤드드레스는 특색이 있었는데 패션사상 여자 모자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자들의 흰색 린넨으로 된 머리수건으로 머리카락을 감추고 목과 어깨까지 가렸다. 아주 부드러운 실크로 머리를 둥그렇게 말아서 머리마락이 보이지 않게 감추었으며 드레이퍼리한 주름장식으로 마무리 하였다. 머리를 중앙에서 나누어 납작하게 땀을 얼굴의 양쪽에 접어서 각형으로 모양 지우는 방법이 유행하였다(김춘득, 2002). 15세기는 머리채를 땀아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굵실거리는 머리더미를 뒤로 넘겨 풀은 채로 두거나 비로드 리본으로 가볍게 묶기도 하였다. 바비에르의 이자보 여왕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장식을 한 원뿔형 모자를 착용하여 유행을 만들었는데 모자는 머리 전체를 감싸고 이마를 돋보이게 하였는데 어떤 여인들은 거기에 눈썹까지 뽑고 모자 밑으로 머리카락을 빼내어 흐트러뜨렸으며 그것도 모자라 이마에 난 머리털까지 뽑기도 하였다. 15세기 후반 원뿔모자의 하락이 급격해지다가 완전히 사라진 후 짧은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게 되는데 단지 처녀들만이 결혼하기 전까지 처녀라는 표시로 머리를 풀고 다녔다. 이 풍습은 프랑스 왕녀들이 머리를 풀어 흐트러뜨린 스타일로 결혼을 하여 더욱 입증되었다. 땀은 머리를 전부 덮어버리는 중세의 모자류를 없애버리고, 낮고 작은 머리자체를 아름답게 형성하는 장식이 없는 스타일을 최초로 시작한 것은 이탈리아의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은 끈 문화가 발달하여 가발과 끈을 교차시켜 머리를 돌려 감아 땀은 머리나 헤어스타일을 부풀려서 싱을 넣고 머리를 커 보이게 하는 스타일들을 주로 하였는데 금속 헤어밴드로 장식을 하여 가발과 어우러져 고급스럽고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가운데 가르마를 하고 짧은 사이드의 머리에 웨이브를 만들어서 떨구었다. 머리장식으로 헤어네트로 싸는형, 터번모양이나, 뿔모양, 하트모

양 등이 있다. 펠이 달린 네트제의 카로트를 줄리엣 캡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유행하였다. 가장 즐겼던 머리장식은 가는 사슬을 이마에서 뒤로 돌려서 이마의 중앙에 다이아몬드, 진주 등 보석의 장식을 내려다는 방식(김춘득, 2002)이다. 금발 머리채는 몇 세기동안 중세기 사회에서 진정한 종교예식의 산물이었으나 교회에서도 심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많은 비난을 하였다. 11세기의 성 앙셀름에서 15세기의 설교집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이상형의 여인으로 간주되는 미적인 기준은 교회법규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래서 금발 머리는 변하지 않는 미의 기준이 되었는데 귀족임을 나타내는 금색의 정도에 따라 특별한 손질을 더 하였다. 금빛 나는 머리, 담황색 머리, 잿빛 금발머리, 태양보다 더 아름답고 반짝이는 머리 등으로 금색의 정도가 달랐다. 이러한 머리색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머리를 탈색해야했다.

여인들은 머리의 색으로 평가되는 머리채를 길고 굵실거리며 풍부하거나 섬세하게 가꾸어야했다. 그러한 모습의 예로 머리채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상아빛 어깨 위에 나풀거리고 풍만한 가슴을 기묘하게 덮기도 하며 가늘고 유연한 허리까지 길게 내려와야 했다(정현진 외, 2004).

이탈리아 명문가인 스포자, 에스테스, 곤차가, 메디치와 유명한 화가들이 흥미를 끄는데 당시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정보는 화가들의 작품에서 비롯된 것이며 명문가의 일원들이 초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초상화들은 당시의 패션자료로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길게 흘러내리게 했고, 결혼 후에 머리를 감췄으며, 머리의 자연스런 모양을 따랐고 땡은 머리를 상당히 강조했으며 땡는 형태가 매우 다양했다.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살짝 웨이브를 하거나 직모였다. 머리 자체는 아주 단순하게 묶고 장식적인 효과를 이용했다. 복잡한 헤어스타일들은 귀족의 초상화나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화적인 인물을 그린 예술가의 작품들에 나타난다.



[그림 17] 라 벨라 시모네타. 피에로 디 코시모가 그린 그림
(출처 : Richard Corson, Fashions in Hair)

상당량의 가발도 사용했고 이탈리아에서 특히 유행을 했다. 이탈리아는 특히 금발이 유행이었고 다양한 색을 위해 탈색, 염색을 많이 했는데 일반 대중들이 했던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빠져나온 머리를 스스럼없이 뽑았다. 북유럽의 당시 유행했던 여성 스타일은 이마가 더 높게 보이게 하도록 헤어라인을 위쪽으로 잡아당기고 정교한 장신구와 철사로 만든 두상 장식품으로 그들의 뒤쪽을 장식했다. 이탈리아의 따뜻한 기후는 보석 박힌 터번이나 이마에 감는 가느다란 리본, 땅아 올린 두발을 드러내 보이도록 했다 (이군자 외, 2008).



[그림 18] 15세기 이탈리아 헤어스타일
(출처 : Richard Corson, Fashions in Hair)



[그림 19] 15세기 프랑스 헤어스타일
(출처 : Richard Corson, Fashions in Hair)

16세기는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 프랜시스 1세의 시대로 왕들이 모두 헤어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었고 15세기 스타일이 이어졌으며 특히 결혼한 여성이 머리를 주로 감추었다. 가운데 가르마를 탄 후 끝은 땀거나 꼬거나 켄하거나 물을 만들고 시봉 내지는 리본과 함께 땀었다. 느슨하게 땀거나 부분적으로 감췄고 자연스런 형태에 따라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을 선호했다.

영국에서는 1540년 이후 유행에 민감한 여성은 웨이브와 켄을 하였고 프랑스, 이탈리아는 먼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관자놀이 부분이 부드럽고 편편한 헤어스타일 대신 부풀리거나 곱슬 거리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1545년 최초의 금속 헤어핀이 영국에서 사용되었다.



[그림 20] 16세기 영국 헤어스타일
(출처 : Richard Corson, Fashions in Hair)

16세기 중반이후에는 풍성함을 주기위해 머리를 위로 빗고 패드를 사용하기까지 했는데 네덜란드 초상화에는 상류계급의 어린 소녀들조차 모두 이 스타일을 했다고 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가발을 많이 수집했는데 단단하게 켄된 머리를

좋아했다고 한다. 자연적인 금발을 간수하는 것이 모자라, 80개의 가발로 의상에 따라 맞추어 썼다. 당시의 금발은 햇빛과 비교하여 달조차 없는 칙흑 같은 밤의 색과 정반대 색으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미적인 면에서 순수성과 천진함을 나타내는 이상을 상징한 것 같다. 16세기의 금발은 티치아노같은 유명화가들로 인하여 유명해졌는데 모든 멋을 추구하는 이들이 즐겨하는 머리색이었다. 마리넬로 경이 쓴 <리 오루나멘티 텔레 도네>라는 책에는 금발을 만드는 비법을 수록했는데 포도나무를 태워 그 재와 보리 켄과, 참빗살나무와, 초벌 껌질을 벗기고 레몬과 함께 쪼은 감초 가지를 맑은 물에 넣고 끓인 후 그 뜨거운 물에 머리를 담그면 된다고(정현진 외, 2002)전한다.



[그림 21] 16세기 영국 엘리자베스 1세, 가발

(출처 : Richard Corson, Fashions in Hair)

올백으로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우아한 스타일에 머리를 뒤로 살짝 묶어 헤어네트로 덧씌웠다. 헤어네트에는 보석이나 구슬을 장식하였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가발에 후광을 만들어 보석으로 장식해 백 헤어네트에서 빛이 나게 하였으며 뒷머리를 방추형으로 철사를 넣어 구부리기도 하고 머리를 받치기도 했다. 의상의 깃을 세우고 장식한 경우도 있어 더욱 돋보이게 했다. 스코틀랜드 메리여왕은 부드러운 날개형과 뿔형 가발을 선호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가발을 수입하고 있었으나, 감옥에 유폐되어 있는 동안에도 하루걸러 가발을 바꾸었고 단두대에 올라 갈 적에도 가발을 쓰고 죽었다는 일화가 있다(김춘득, 2002).

마그리트 드 발루아는 자신의 가발을 만드는데 필요한 머리카락을 제공받기 위

해 금발을 가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한다. 머리형을 항상 고안하기를 좋아한 사람이며 아주 보기드문 검은 머리를 갖고 있었으나 그것을 블론드로 바꾸기 위해 가발을 사용하였고 가발을 만드는 모발을 수집하기 위해 젊은 시종들의 금발을 깎기도 했다. 금발 머리를 갖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떡갈나무에서 채취한 가루에 향기를 넣어서 머리에 뿌리고 회색의 모발로 보이게 하는 유행을 만들어냈다(김춘득,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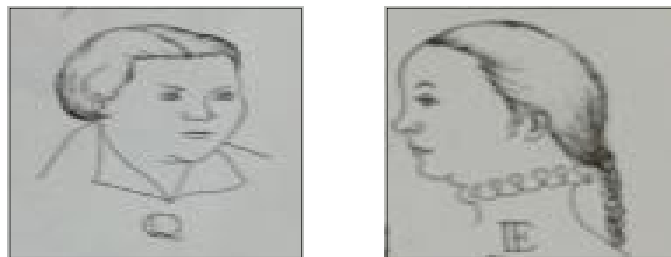
[그림 22]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가발
(출처 : Richard Corson, Fashions in Hair)

카트린 드 메디치는 가발을 대중화하는데 일조했으며 딸의 머리카락을 받은 대가로 다섯 푼을 지불하였다고 한다. 카트린의 헤어스타일은 금발머리를 꼬불거리게 고대기로 지지거나, 양털 같이 오글오글하게 강한 웨이브를 주어 부풀리고 풀을 먹여 뽀뽀하게 주름 잡힌 옷깃을 세우는 스타일이었다. 단순한 헤어스타일로 표현하는데도 여러 가지 인공적인 방법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베니스식의 금발은 유럽 왕손들이 모두 따라할 정도로 커다란 유행을 일으켰다. 베니스에서는 갈색머리를 복잡하고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염색을 하고 머리를 햇볕에 말리는 방법을 차례로 거쳐 금발에 가까운 비슷한 색으로 만들어 치장하였다. 이 금빛의 머리는 16세기의 모든 시인들이 노래하는 주제가 되었고, 그들의 시를 통해 금발은 여성미의 이상형으로 인식되었다. 프랑스의 어느 시인은 금발로 뿜은 머리채를 풀을 뜯는 염소의 꼬불거리는 털에 비유를 했고, 어떤 시

인은 금빛머리를 눈부시게 하는 햇살로, 섬세한 금보다 더 진한 머리는 신만이 가지는 색으로 햇살이 가지각색으로 반투명하게 반짝이며 그들을 비춘다고 하였다(김춘득, 2004). 베니스에서는 가짜 머리를 포마드로 고정시켰고 머리에는 가끔 파우더를 뿌리기도 하고 영국 궁정 부인들 역시 파우더를 뿌리거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자연스런 머리색과 어울리도록 노란색으로 염색을 했다. 유행에 앞선 여성들은 염색과 탈색을 했고 특히 탈색은 이탈리아인들이 즐겨 행했었다. 1589년 케사르 베첼리오는 정교한 작업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베니스의 집들은 보통 나무로 만든 작은 구조물이 건물 꼭대기에 있는데 이것은 지붕이 없는 망루와 비슷하다. 베니스 여성들은 자신의 방보다도 더 자주 머물렀고 하루 종일 햇빛에 앉아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모든 알려진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인위적인 머리의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자연적인 머리의 아름다움을 감추려는 듯했다. 태양 빛에 머리가 마르자마자 다시 적시고 다시 적시고 하는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우리가 보는 머리 빛깔 바로 금발을 만들었다. 겨울이나 별이 없을 때는 불 앞에서 머리를 적시고 말렸다(Richard corson, 2001, P.10-31).” 베네치아 여성들이 태양아래 오래 앉아있음으로서 발생한 해악들에 대해 벌워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노란 머리를 매우 선호해 태양아래 종일 앉아 원하는 색상을 얻긴 했으나 그에 따른 댓가가 따랐다. 어떤 귀부인은 몇 시간씩 작열하는 태양 밑에 맨머리를 내놓고 특수연고를 발라 노란 머리를 만들려고 했고 결국 극심한 두통과 생리장애까지 앓았다고 한다. 델라 폴타는 헤어에 위한 두 가지의 레시피를 포함하였는데 노랑색으로 염색하기위해 하얀 와인 찌꺼기를 꿀과 함께 부드럽게 하고, 젖은 헤어에 발라 저녁 내내 지속시키고 애기똥풀의 뿌리를 상처를 주고, 올리버 매더에서 쿠민 씨앗 오일, 박스웨이빙, 샤프란과 함께 이것을 믹스하여 머리에 4시간과 20시간을 바른 상태로 지속한 후 양배추와 호밀 줄기의 잿물로 씻어내어져야만 한다. 그들의 헤어를 강하고 곱슬기 있게 하려면, 샬러리 씨앗과 함께 처녀머리를 와인과 오일로 끓이고 혹은 갈매나무속의 나무를 와인과 오일과 함께 끓인다(Richard corson, Fashion in make up, pp. 99,11-18). 스타브스의 기록에 의하면 자존심을 세우는데 있어 부족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머리에 화관을 쓰고 벼슬 모양으로 세우고 브로치, 금, 은, 장신구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 그들은 심지어 말, 동물들의 털

까지 샀으며 원하는 목록대로 염색을 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지닌 여성들이 있다면 지체 없이 그 머리를 사버릴 것이다.

르네상스 초기에는 고딕풍의 에넵이 유행하여 높이가 1m까지 되는 것도 있었으나 16세기에는 아주 없어졌고, 이마를 드러내놓고 머리에 맞는 모자를 착용했다 (이영미 외, 2008). 르네상스 시대의 헤어스타일은 비교적 자유로웠고 얼굴을 가름하게 보이도록 베일로 장식을 하거나 모발은 묶거나 귀를 숨기거나 내어놓곤 했다. 좋아하는 색으로 염색을 하거나 가발을 착용하기도 했다.



[그림 23] 16세기 독일 헤어스타일
(출처 : Richard Corson, Fashions in Hair)



[그림 24] 16세기 프랑스 헤어스타일
(출처 : Richard Corson, Fashions in Hair)



[그림 25] 머리를 탈색하는 베네치아 여성
(출처 : Richard Corson, Fashions in Hair)

올레올형의 스타일은 정중앙에서 가르마를 만들어서 이마부분을 약간 부풀게 하면서 뒤로 넘겨 빗어서 시니온으로 정돈하는 방법이다. 캡형 스타일은 시니온에 리본으로 묶거나 펄의 네트로 장식하거나하여 얇은 가제나 린넨의 캡을 쓰거나 해서 한껏 화려한 후광을 결들였다. 그리고 이런 머리위에 푸드를 써서 그 내려진 것이 얼굴과 후두부에 걸리게끔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페미닌스타일로 연출하여 웨이브를 만들고 백을 시니온으로 정리 정돈하는 마리 드 메디치스타일이다. 헤어장식으로 아티페는 얇은 가제로 만들어서 갓에 와이어가 들어간 하트형의 캡을 사용하게 되었다. 미망인의 모자라 하는 것으로 올레올 스타일로 하트형의 상단이 이마에 걸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메리스튜어트, 카트린 드 메디치가 애호하였고 화란 코이프, 가발, 마스크도 사용했다.

프랑스 루이 왕조의 선조에 해당하는 프린세스 왕녀의 머리 스타일은 완전한 하트형 머리로 양옆을 부풀려서 우아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스타일은 얼굴을 더욱 가름하게 보이게 하였다 (김춘득, 2004).

III. 드 메디치 가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고찰

3.1 메디치 가문 여성들

피카르다 부에리는 조반니 데 메디치의 부인으로 코시모와 로렌초라는 두 아들을 낳았다. 콘테시나 데 바르디는 국부 코시모의 부인으로 14세기에 피렌체에서 가장 부유한 은행가 가문인 바르디가 출신이었고 이 결혼으로 바르디 궁전은 메디치가의 소유가 되었다.

지네브라 데글리 알비치는 조반니의 부인으로 코시모가 젊었을 때 그를 격렬히 반대하고 파멸시키고 죽이려했던 가문 출신 여성이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으나 아홉 살의 나이에 죽었다.

루크레치아 나부오니는 피에로 일 고토소(1464~1469)의 부인으로 그녀가 속한 가문은 한 때 귀족 토르나퀸치가였으나 약 200년 전에 시뇨리아에 입각할 목적으로 평민이 되기 위해 가문명과 문장들을 변경했는데 이들은 예술을 각별히 후원한 사람들이었다. 공부를 많이 한 여류시인이자 학문의 큰 후원자로도 유명하다. 종교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고 인품 또한 대단히 높은 여성이었다고 한다. 클라리체 오르시니는 로마 여성으로 위대한 자 로렌초(1478~1492)의 부인이다. 알폰시나 오르시니는 로마가문의 한 사람으로 로렌초의 장남인 피에트로와 결혼을 했다.

클라리체 데 메디치(클라리체 스트로치, 1493~1528)는 피에트로의 아들 로렌초의 누이동생으로 유능했던 그녀를 두고 삼촌 레오 10세는 클라리체가 남자이고 로렌초가 여자였으면 좋았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닐 만큼 기개 있고 지성이 뛰어난 여성이었다. 어머니 알폰시나의 주선으로 영향력 있는 스트로치의 수장 필리포 스트로치와 결혼을 한 클라리체는 토르나부오니 거리에 자리잡은 준수한 스트로치 궁전의 첫 주인이 되었다. 필리포 스트로치는 가장 참되고 신실하고 유능한 내조자였던 그녀에게 감사했다. 메디치가의 이름을 훌륭히 지키고 스트로치의 명망을 안겨준 그녀였기 때문이다.

카트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s, 1519~1589)는 클레멘스 7세가 카를 5세의 허를 찌를 의도로 주선한 결혼은 프랑스인들의 마음에 뿌리 깊은 편견을 심어놓았고 왕의 아들이 일개 부르주아 출신 여성과 결혼한 것을 프랑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해 중대한 모욕을 끼쳤다고 느꼈다. 프랑스 앙리 2세의 왕비로 아버지 우르비노공 로렌초 데 메디치와 어머니 마들렌 드 라 투르 도 베르뉴(부르봉가)로 피렌체에서 출생했다. 평소 이탈리아를 흠모했던 프랑수아 1세의 의지로 카트린은 프랑스 왕가로 시집을 가게 된다. 카트린의 삼촌인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프랑수아 1세의 둘째아들 앙리와의 결혼을 결정하고 막대한 지참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끝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결혼 당시 카트린이 데려간 이탈리아의 요리사들은 식사 예절과 함께 프랑스 요리의 시발이 되기에 충분했다. 카트린은 그리스어와 수학에 능하고 활달하고 밝은 성격에 프랑수아 1세와 그의 누이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런 프랑수아의 사망으로 갑자기 왕태자비가 된 카트린에게 프랑스의 여론은 지극히 적대적이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 폐위 문제까지 거론되었으나 샤를 9세, 앙리 3세, 마고로 유명한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등 모두 10명의 자식을 낳았다. 프랑수아 1세 사망후 앙리 2세가 즉위하면서 카트린 드 메디치는 프랑스의 왕비가 된다. 프랑스로 오기 전부터 디안드 푸아티에는 앙리 2세의 정부였고 카트린은 그 이유로 이름뿐인 왕비였었다.

그럼에도 앙리 2세를 깊이 사랑했고 그의 선심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마상 시합을 하다가 앙리 2세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급사를 하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카트린은 죽을 때까지 검은 상복을 입었다. 아들 프랑수아 2세가 즉위하였으나 일찍 죽고 샤를 9세를 거쳐 앙리 3세로 즉위한 후 이후로 정치적인 힘을 발휘했다. 카트린은 협상을 통해 많은 성과를 보였으며 가장 뛰어난 성과는 외교 정책이었고 앙리 3세를 폴란드의 왕으로 즉위시켰다. 왕권에 도전하는 기즈가문과의 대립 나바르와 손을 잡고 프랑스 왕권 확립에 힘을 주었다(김복례, 2006).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Marguerite de Valois, 1553 ~ 1615)는 프랑스와 나바라 왕국의 왕 앙리 4세의 첫 왕비이며 여왕 마고라 불린다. 1994년 여왕 마고가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아름다운 외모, 뛰어난 재능으로 관심을 받았으나 방탕한

사생활로 비난을 받았다. 아버지 프랑스왕 앙리 2세,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시스 왕비이고 기즈가문의 당주 앙리 드 기즈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자 했으나 카트린의 방해로 이루지 못했다. 카트린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기즈 가문이 왕의 딸과 결혼하여 정치적으로 더욱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았고 과거 자신의 정적이자 남편의 정부였던 디안 드 푸아티에를 지원한 사실을 잊지 않아 기즈 가문을 몹시 싫어했다. 결국 앙리 드 기즈는 포르시앵의 미망인 공작부인인 카트린 드 클레베와 결혼했다. 기즈 공작을 사랑했던 마르그리트는 개신교신자인 앙리 드 나바리와 결국엔 드 메디시스와 샤를 9세의 강요로 결혼 응낙을 하였다. 나바라의 어머니 잔 달브레 역시 카트린을 신뢰하지 않았고 카톨릭 신자인 마르그리트 공주를 며느리로 맞는 것을 꺼려했으나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여긴 가신들의 요청으로 결혼을 수락했고 마그리트의 미모와 지성에 감탄한 나머지 아들에게 몸단장에 신경 쓸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림 26]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출처 : <http://blog.naver.com/zigsew/220139768165>)

가브리엘 데스트레 (Gabrielle d'Estrees, 1573 ~ 1599)는 프랑스 국왕 앙리 4세의 애첩이자 보포르와 뵈르네유 공작부인이자 몬세유 후작부인이다. 앙리를 만났을 당시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와는 대단히 사이가 나빴다. 앙리는 가브리엘을 프랑스 궁정에서 대동하고 다녔고 그녀는 좋은 조언자였다. 가브리엘로 인해 카톨릭으로 개종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세자르라는 아들도 태어나 몽소 후작부인의 지위가 주어졌다. 앙리에게 사실상의 아내가 되었고 앙리의 결혼 요청으

로 교황청에 마르그리트와의 혼인 무효 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병에 걸린 가브리엘은 죽음에 이르렀고 장례는 왕비의 대우로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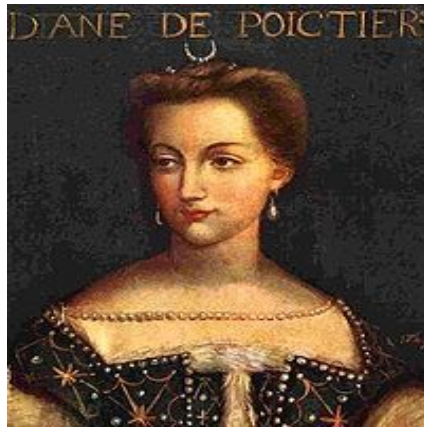
[그림 27] 가브리엘 데스트레>

(출처 ; <http://mny0824.blog.me/20111940997>)

디안 드 푸아티에 (Diane de Poitiers, 1499 ~ 1566)는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 앙리 2세 시대의 프랑스 궁정에 출입을 했던 프랑스의 귀부인이며 특히 앙리 2세의 애첩으로 아버지 생바리에의 영주 장 드 푸아티에, 어머니 잔느 드 바타르네이의 딸로 생 바리에성 출생이다.

“아름다운 여자 사냥꾼이었던 디안은 장 구종의 조각상으로는 당당한 누드로 레다의 백조처럼 사랑에 눈먼 채 신비스런 수사슴을 껴안고 있다. 디안 프와티에는 젊은 로저를 유혹하기 위해 젊음의 샘을 발견한 노파 알치나처럼 젊음이 마르지 않는 기이한 여인이다. 퐁텐블로에 있는 프리마티초의 여왕이고, 어느 때는 영원한 불에 둘러싸인 음침한 헤카테(마녀)이다.”(메디치, 이길상 옮김. p.371). 15세에 아네의 영주 루이 드 브레제와 결혼해 2명의 딸을 낳았다. 루이는 샤를 7세의 손자로 프랑수아 1세의 궁정에 드나들었다. 루이가 사망하자 남은 생애동안 검은색의 상복으로 보냈다.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듬어진 몸매와 스포츠맨인 그녀는 프랑수아 1세의 첫 왕비인 클로드 프랑스의 시녀가 되었다. 앙리 2세는 카트린 드 메디시스와 혼인을 했는데 실제 카트린과 디안은 라이벌인 동시에 육촌 자매이기도 한 것이다. 한동안 아이가 없어 걱정을 했으나 10명의 아이를 낳았다. 앙리와 디안은 평생 친구였고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존재

였다. 디안은 아름다운 여성으로 50이 넘어도 여전한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지적이고 통찰력이 뛰어난 디안의 영향을 장남인 프랑수아 2세의 왕비이자 스코틀랜드 여왕인 메리 스튜어트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디안 때문에 카트린은 질투로 몹시 괴로워했다.



[그림 28] 디안 드 푸아티에
(출처 : 위키백과)

앤 불린 (Anne Boleyn 1507?~1536)은 헨리 8세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며 1533년 엘리자베스 공주가 태어났다. 잉글랜드 튜더 왕조의 마지막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로 어린 시절 외교사절인 아버지를 따라 3년간을 프랑스에서 보낸 뒤 15세 때 귀국하였다.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고 왕가의 사람들의 예절을 배워 여성적인 매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졌고 잉글랜드로 돌아온 얼마 뒤 궁정으로 들어가 왕비 캐서린의 시녀가 되었다. 헨리 8세는 왕비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여 왕가가 단절될 것을 염려하여 이혼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검게 빛나는 아름다운 눈과 붉은색 금발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으며, 헨리 8세는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교황에게 캐서린과의 결혼무효를 신청하였으나 교황 클리멘스 7세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정치 외교적 입장에 놓여있었다. 캐서린의 조카가 카를 5세였기 때문에 헨리와 캐서린의 이혼을 인정하게 되면 스페인왕국과 합스부르크 왕가와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의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며 수년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았다. 헨리 8세는 자신의 후계자인 아들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더욱 초조해지고 결국 교황과 대립하여 영국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다. 1533년 1월 25일 앤 불린은 헨리 8세와 비밀결혼을 하여 부활절에 이 사실을 공포하였고 9월 엘리자베스 1세를 낳았으며, 1534년 아이를 유산하고 1536년 1월 왕자를 사산하였다. 왕자를 열망한 헨리에 의해 간통과 근친상간 오명을 쓰고 (두산백과, 2014. 11. 3 검색) 처형되었다.



[그림 29] 앤불린
(출처 ; 두산백과)

마리 드 메디치 (Marie de Medici, 1573~1642)는 피렌체의 메디치가 출신으로 토스카나 대공의 딸이자 루이 13세의 어머니, 앙리 4세의 후처인 마리 드 메디치는 정치적 야망이 강한 권모 술수가였다. 왕이 죽자 섭정을 하였고 이탈리아 출신의 콘치니와 그의 아내 갈리가이의 힘을 빌려 전왕의 구신을 멀리하였고 1614년 삼부회에서는 리슐리외의 재능을 발견하고 고문관으로 발탁했으나 1617년 루이 13세에게 정권을 빼앗겨 아들인 왕과 끊임없는 항쟁을 계속했다. 이 와중에 리슐리외를 적대시하여 그의 추방을 계획했으나 성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블루아로 추방되었다. 토스카나 대공 프란체스코 1세와 오스트리아인 대공비 요안나의 딸이자 토스카나 초대 대공 코시모 1세의 손녀였다. 그녀의 아버지 프란체스코 1세는 국정보다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결혼전부터 베네치아 여서인 비앙카 카펠로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아내 요안나는 불행한 결혼 때문에 동정을 받긴 했으나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상대와 결혼했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으므로 거만한 오스트리아인이라 불리며 백성들의 사랑을 받지 못

했다. 결혼 후 13년 만에 요안나가 죽자 비앙카와 재혼했다. 프란체스코 사망 후 동생 페르디난도가 뒤를 이었고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도록 지원을 했고 앙리와 돈독한 친분을 원하는 페르디난도에게 진 막대한 부채를 경감하려는 앙리의 생각이 일치해 마리아를 앙리에게 시집보낸다. 카트린의 지참금도 엄청났지만 마리아의 지참금은 역대 프랑스 왕비들 중 최고였다고 한다. 마리아는 그리 지혜롭지는 않았으나 그녀의 금발과 크림같이 하얀 피부색은 앙리를 매혹시켰다고 한다. 그의 바람기는 잘 알려진 바 마그리트와는 달리 앙리를 매우 사랑했으며 왕과의 다섯 자녀를 두었고 앙리 사망 후 섭정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권력위임 후 왕권 실추와 함께 블루아에 유배되었다. 자신이 후원했던 화가 루벤스의 도움으로 삶을 살다 불행한 생을 마친(김복레, 2006)다.



[그림 30] 마리 드 메디치
(출처 : 프랑스왕과 왕비, 2006)

메리 스튜어트 (Mary Stuart , 1542 ~ 1587)는 스튜어트 왕가 출신의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비로 훗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공동 왕이 되는 제임스 1세의 어머니이다. 메리 스튜어트는 1542년 12월 8일 스코틀랜드 왕국의 린리스고우 궁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5세이고 어머니는 프랑스의 명문 귀족이자 방계 왕족 출신인 마리 드 기즈이다. 제임스 5세는 메리가 태어난 지 6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1543년 9개월의 아기였던 메리 스튜어트는 대관식을 치르고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되었고 아란 백작 제임스 해밀턴과 메리의 어머니 마리 드 기즈가 섭정을 했다. 그녀의 할아버지 잉글랜드의 헨리 8세의 협박에 가까운 추진으로 그의 아

들 에드워드 6세과 약혼했으나 헨리 8세가 노골적으로 스코틀랜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자 동맹도 약혼도 깨어졌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사이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1547년 9월 10일, 스코틀랜드 군은 잉글랜드 군과 싸워 대패했는데 이 전투가 영국 땅 최초의 근대적 전투라 불리는 핑키 클로의 전투이다. 딸 메리를 염려한 마리 드 기즈는 잉글랜드의 숙적인 프랑스에 도움을 청했고 1548년 메리는 프랑스의 앙리 2세의 아들 프랑수아 2세와 약혼을 해 스코틀랜드를 떠나 프랑스 궁정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성인이 된 메리 스튜어트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180cm가 훨씬 넘는 큰 체격을 지니고 있었다. 유럽 궁정 문화의 최첨단을 걷는 프랑스 궁정에서 메리는 총명한 소녀로 자라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문학, 사냥, 승마, 바느질, 악기에도 능했다. 메리는 당대 왕녀들 중 가장 아름답고 키가 늘씬하기로도 유명했으며 프랑스에 온 지 10년 만인 1558년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와 프랑스의 왕태자 프랑수아의 결혼식이 열렸고 다음 해 앙리 2세가 승화하고 프랑수아 2세는 프랑스의 왕이, 메리 스튜어트는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다. 메리는 왕관이 두 개나 되는 것과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했고 국사 같은 고리타분한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국사를 완전히 삼촌들인 기즈가 사람들에게 맡겼고 유약한 젊은이 프랑수아 2세의 기를 꺾고 자기들의 도구로 사용, 카트린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림 31] 메리스튜어트
(출처 : 나는 꽃이 아니다, 2012)

카테리나 스포르차 (Caterina Sforza, 1463~1509)는 조반니 ‘포포라노’의 부인이며 이몰라의 여백작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나이에 걸맞지 않은 불가사의한 여성, 초인적인 능력과 용기와 결단을 소유한 여성으로 간주되었다. 카테리나는 ‘이탈리아의 여걸’로 불렸는데 아름답고 잔인한 여자, 대담하고 드센 여자는 당시 남성들의 눈에는 정복욕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여자로 보였을 것이다 (르네상스의 여인들, 1996). 당대의 관습에 따라 치밀한 교육을 받았다. 고전학, 현대문학에 정통했고 예술과 과학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지식과 음악, 춤, 사냥에도 함께 했다. 조반니 델레 반데 네레(1498~1526)와 마리아 살비아티(1499~1543) 야코포 살비아티와 그의 아내 루크레치아 데 메디치의 딸이자 위대한 자 로렌초의 증손녀인 마리아 살비아티는 당대의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 가운데 한사람이다. 정이 많고 건실한 상식, 지혜, 능력으로도 매우 주목할 만했다.



<그림 32> 카테리나 스포르차
(출처 : 위키백과)

비앙카 카펠로 (1543~1587)는 베네치아 귀족들 중에 자부심이 강하고 유명하기로 손꼽히는 귀족 바르톨로메오 카펠로의 딸로서 베네치아 귀족가문의 화려하고 사치스런 분위기에서 자랐다. 외모까지 아름다웠던 그녀를 프란체스코는 24년간 일관된 애정을 가지고 그녀를 사랑했고 다른 사람에게 한 눈을 팔지 않았다.

잔 달브레(1528년 1월 7일 ~ 1572년 6월 9일)는 나바라 왕국의 여왕 후아나

3세이며 나바라 왕 엔리케 2세와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프랑수아 1세의 조카이며 앙리 4세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1528년 생 제르맹 앙레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프랑스 왕족이었던 인연으로 프랑스 궁정에서 자랐다. 종교개혁자들의 보호자였던 어머니 마르그리트의 영향을 받아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위그노였다. 1541년 외숙부 프랑수아 1세의 명령으로 윌리히-클레베스-베르그연합공국의 빌헬름 5세와 결혼했으나 4년 뒤 이 결혼은 무효 처리가 됐고 그녀는 방돔 공작 앙투안 드 부르봉과 결혼했다. 나바라 왕국은 살리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엔리케 2세의 사후, 잔은 남편과 함께 나바라의 군주로 즉위했다. 잔은 곧 나바라의 국교를 개신교로 지정하고 가톨릭을 배격했다. 그러나 1560년 샤를 9세 치하에서 남편 앙투안은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아들 앙리 또한 개종시켰다. 1562년 위그노 전쟁이 발발하자 부부는 가톨릭 진영과 위그노 진영으로 갈라서서 대치했고 앙투안은 루앙에서 전사했다. 샤를 9세의 어머니로 당시 왕태후였던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 양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을 결혼시키기로 했다. 가톨릭 진영에서는 샤를 9세의 여동생인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가, 위그노 진영에서는 잔의 아들인 앙리 드 나바라가 선택되었다. 잔은 이 결혼을 탐탁치 않아 했으나 카트린의 설득에 결국 승낙했고 1572년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간 파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사인에 대해서는 카트린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설과 지병으로 병사했다는 설이 존재한다. 자녀는 두 번째 남편 앙투안 드 부르봉과의 사이에서 3남 2녀가 태어났다.



<그림 33> 잔달브레
(출처 : 위키백과)

엘리자베스 1세 (Elizabeth I, 1533~ 1603)는 영국의 절대군주 헨리 8세와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녀가 갓 세 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본래 어머니 앤 불린은 캐서린 왕비의 시녀였는데 그녀의 아버지 헨리 8세가 앤불린을 마음에 두고 결혼하기위해 눈물겨울 정도로 공을 드렸으나 교황청의 반대로 카톨릭을 기독교로 개종까지 해가며 반대파를 숙청하고 올린 결혼식이었으나 결국 앤이 낳은 엘리자베스가 왕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금이 가고 만다. 앤은 엘리자베스를 왕위계승자로 올리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부하들을 끊임없이 죽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간통죄로 몰아 딸과 함께 런던탑에 가두었는데 어머니는 참수를 당하고 엘리자베스 공주는 어머니의 간곡한 청으로 살아남았다. 헨리 8세 사망후 이복동생인 에드워드 6세를 거쳐 메리 1세가 즉위, 로마 카톨릭 복고정책을 펴며 기독교와 성공회를 철저히 탄압했던 메리 1세를 두고 ‘블러디 메리’라 칭하였다. 메리 1세 사망 후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 해 무려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다. 왕의 딸로 태어나고도 서출이라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는 결혼까지 외면하고 영국을 황금시대로 이끈 탁월한 지도자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으며 ‘그대들은 나보다 더 좋은 리더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나, 나보다 더 그대들을 사랑하는 리더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신금자, 2012).



<그림 34> 엘리자베스 1세

(출처 : <http://cafe.naver.com/kseg/7255>)

안나마리아 루도비카(1667~1743)는 메디치가의 마지막 사람으로 스물네살에 라인 강 섭 팔츠의 선제후에게 시집간 뒤 남편이 죽을 때까지 스물 여섯 해 동안 중요한 지위를 맡다가 과부가 되어 아버지 코시모와 살기위해 돌아왔다. 안나마리아는 예술적 취향과 창의력으로 제공할 수 있고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보석, 귀금속들을 닥치는 대로 수집했고 이 모든 물품들을 우피치 박물관에 공급했다. 통치능력이 뛰어났고 예술분야에 대한 후원, 빈민구제, 적절한 품위 유지면에서 역사상 최고 가문의 후예답게 행동했다.



<그림 35> 안나마리아 루이사와 그녀의 남편
(출처: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3.2 드 메디치 가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분석

3.2.1 조형적 특성 분류

모발 디자인은 구조감 조성을 통해 표출되는 기법으로 이는 미적 표현주의와 개성적인 마감표현으로서 조형적, 실용적 의미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창조활동을 포함하며 예술과 디자인의 속성을 포함하는 미용 조형예술로서 크게 예술 창작과 디자인 표현의 조형 활동을 구분한다 (진태연 외, 2010). 헤어스타일 연출에 따른 분석을 위해 조형적 특성 중 형태, 질감, 색, 장식적인 요소에 따른 성격을 분류해 분석하고자 한다.

3.2.1.1 헤어스타일의 형태 (Form)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형태(form)는 사전적 의미로 ‘형, 형상 등과 거의 같다는 뜻’으로 사용되나, 디자인 용어로는 구체적인 입체를 말하며, 형은 추상적인 평면적 도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에 있어 형태는 기능을 고려한 목적적 조형이어야(하영, 1997)한다.

형태가 가진 특성은 첫째, 동적인 개념에 의하면 두 면과 각도를 가진 방향으로 이동한 3차원의 궤적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 철학적인 개념으로 사물의 실체적 본질에 대한 외형적 양식을 의미하며 셋째, 일반적 개념으로서 형태는 시각적 지각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윤곽선, 3차원의 양감, 볼륨을 뜻하고 넷째, 예술적 인식 면에서 형태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 보는 시점,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김가연, 2003) 있다. 형태는 주로 시각적 촉각에 의해 지각되기 때문에 색채와 함께 대상의 감각적 경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형이란 어떤 형태의 윤곽이라 말할 수있으며 형태는 형으로 이루어진 윤곽, 내부,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3차원적 표현 용어이다. 형태의 기본 요소는 점, 선, 면, 입체이다(지치영, 2002).

구체적인 입체의 형태를 말하며 3차원의 볼륨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는 방향을 지니는 선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선은 점이 만들어낸 소산이다. 조형요소 중 점은 그 자체 내에 오직 하나의 긴장만을 지니고 있을 뿐, 전혀 어떤 방향도 갖고 있지 않다. 반면, 선은 긴장뿐 아니라 방향에도 참여하고(진태연 외, 2010)있다.

헤어스타일의 형태는 윤곽선이나 실루엣에 의해 결정되어진 스타일을 말하며, 모양과 크기로는 길이, 넓이, 높이가 균등한 비율의 둥근형과 좌우로 넓이가 길게 확장된 편구형, 세로길이 방향으로 길게 확장된 형인 장구형이 있다.

3.2.1.2 헤어스타일의 장식 (Detail)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장식적인 요소 중 하나인 헤드 드레스(Headdress)는 머리를 보호하고 장식을 하며 신분이나 의례에 따라 격식을 갖추기 위하여 머리부분을 덮는 것의 총칭인데 종류로는 크게 베일(Veil),터번(Turban)등의 스카프

형태와 보닛(Bonnet), 후드(Hood), 캡(Cap)등의 모자 종류로 나뉘며 현대에는 깃털장식, 가발, 헤어 액세서리를 포함한 머리를 장식하는 요소를 가리키며 유사한 용어로는 헤드기어(HeadGear)가(김선영, 2012)있다. 사용법은 머리에 얹는 방법, 머리에 감는 방법, 머리와 얼굴을 감싸는 방법, 머리로부터 상체까지를 덮는 방법 등이 있다. 계급이나 성별을 나타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했던 헤드드레스는 자신을 과시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었고 개성, 지위, 권력 등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었다고 한다. 진주나 꽃을 이용한 장식을 주로 활용했고 궁정문화의 세련되고 우아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미용문화사(김춘득, 2002)에 따르면 에스코피온은 딱딱한 쿠션 상태의 깃을 머리에 둘러서 견사의 네트로 모양 지우고 거기에 금, 은, 진주로 꾸며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이었는데 프랑스 왕의 애첩 디안느 푸와티에가 애용하였다고 한다. 크레스핀은 헤어네트라고 하는데 제임스 3세의 왕비 마르그리트는 진주가 가득히 치장된 크레스핀과 호화로운 왕관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 에난은 헨닝이라고도 하며 에난의 높이는 부에 따라 다양하였으며 베일로 더 높게 하기도 했다. 브레이드는 장식적인 성격을 갖으며 양감으로서의 표현 선 또는 면으로서의 표현 등 여러 가지로 변화시킬 수 있고 끈을 넣어 따거나 웨이브나 컬과의 구성에 의해 보다 많은 실루엣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뽀플은 머리수건으로 팔라가 간소화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직사각형의 천을 머리와 양쪽 귀와 목을 완전히 감싸 드레이프가 지게 쓰는 것으로 베일을 위에 쓰고 세리켓으로 고정시켜 쓰기도 했다.

15세기의 머리장식으로는 헤어네트로 싸는형, 터번모양이나, 뿔모양, 하트모양 등이 있다. 펄이 달린 네트제의 카로트를 줄리엣 캡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유행하였다. 가장 즐겼던 머리장식은 가는 사슬을 이마에서 뒤로 돌려서 이마의 중앙에 다이아몬드, 진주 등 보석의 장식을 내려다는 방식이다.

16세기의 헤어장식인 아티페는 얇은 가제로 만들어서 갓에 와이어가 들어간 하트형의 캡을 사용하게 되었다. 미망인의 모자라 하는 것으로 올레올 스타일로 하트형의 상단이 이마에 걸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메리스튜어트, 카트린드 메디치가 애호하였고 화란 코이프, 가발, 마스크도 이용을 했다.

마르그리트 발루아, 엘리자베스 여왕, 메리스튜어트는 가발을 이용하여 스타일을 연출하기로 유명한데 메리스튜어트는 프랑스에서 가발을 수입하고 있었으나, 감

옥에 유폐되어 있는 동안에도 하루걸러 가발을 바꾸었고 단두대에 올라 갈 적에도 가발을 쓰고 죽었다는 일화가 있다.

3.2.1.3 머리카락의 질감 (Texture)

머리카락에 있어서 질감이란 어떤 표면의 모습이나 느낌으로 부드럽다 거칠다 매끄럽다와 같은 말로 질감의 성질을 표현 할 수 있고 직접적인 접촉으로 알 수 있는 촉각적인 질감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각적 촉감까지의 모든 느낌을 말한다(최점숙, 2007). 형태, 색과 더불어 디자인의 필수 요소로서 촉각으로부터 시각적 지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느낌을(전상구, 2002) 말한다. 촉각적 질감은 거침, 매끄러움, 젖음, 마름, 부드러움과 같은 효과로써, 어떤 대상물에 직접 대하지 않을 경우에도 감각적인 반응이나 촉각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주며 시각적인 질감은 색과 명도, 패턴의 질감을 만들어 냄으로써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평면적인 질감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모발이 균집을 이룬 상태의 결과에 의해 표면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하며 질감에 미치는 요인에는 색감, 모발의 장력과 압력, 모발의 흐름 등이(김환, UPSTYLE, 2009) 있다. 모발에서의 질감은 촉각,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표면의 질인 머릿결인 모질로 볼 수 있는데 매끈하고 비활동적인 언엑티베이티드(Unactivated)와 거칠고 오툴토돌한 느낌의 활동적인 액티베이티드 (Activated) (김경인, 2008)로 구분할 수 있고 매끈함과 거친 질감이 혼합된 혼합형(Combination)이 있다. 헤어디자인에서의 질감은 머릿결을 말하며 매끄러운 느낌과 거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헤어스타일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웨이브모와 직모로 개념화할 수(이수인, 2004)있다. 질감은 눈으로 보여지는 느낌과 손끝으로 느껴지는 촉감으로 두발의 양감과 결을 의미하며 헤어디자인의 완성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3.2.1.4 머리카락의 색

머리카락에 있어서의 색채는 모든 문화권에서 종교, 신화, 전통의식, 예술 등의 분야에 걸쳐 상징과 은유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21세기를 접어들면서 각종 통신 기술의 발달로 문화적 현상을 국제적으로 공유한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상이한 잣대를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던 때를 넘어 국가와, 언어, 종교적 장벽은 더 이상 무의미한 문화권이 형성되고 있다. 색에서 연상된 바가 정서적 반응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특정 개념이나 문화적 요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위해 색채가 아주 효율적인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표 1> 색채의 연상

색상		구체적 연상	추상적연상
	빨강	피, 불, 태양, 사과, 딸기, 장미꽃, 입술, 포도주, 금붕어	정열, 애정, 공포, 흥분, 강렬, 위험, 분노, 생명, 폭발, 에너지, 식욕, 혁명
	주황	저녁놀, 밀감, 가을, 당근, 감, 오렌지, 호박	애정, 식욕, 온화, 따뜻함, 쾌활, 희열, 만족, 풍부, 포근함, 악동
	노랑	개나리, 병아리, 나비, 해바라기, 유채꽃, 금발	행창, 희망, 광명, 유쾌, 화려, 환희, 질투, 주의, 미숙, 경박, 천박, 포근함, 온화, 황제, 발전, 도전
	초록	풀, 초원, 산, 에메랄드, 자연, 삼림속, 개구리, 전원, 초목, 숲, 밀림, 수박	안정, 평화, 청초, 지성, 희망, 이상, 건실, 소박, 안전, 중성, 상쾌, 생명, 휴식
	파랑	바다, 하늘, 가스불꽃, 호수, 여름, 물, 사파이어	희망, 젊음, 냉정, 청순, 시원함, 명상, 영원, 침착, 청결, 정직, 이상, 진리
	보라	포도, 가지, 명, 제비꽃, 귀부인, 라일락, 나팔꽃	창조, 우아, 신비, 신앙, 고귀, 추함, 고독, 적막감, 진실한 사랑, 충성, 인내
	자주	복숭아, 가지, 포도	애정, 창조, 신비, 중후함, 도회적, 화려함, 사치스러움
	흰색	눈, 웨딩드레스, 간호사, 병원, 백합, 소복, 설탕, 신부, 눈사람	순수, 소박, 신성, 정직, 시작, 결백, 순결, 명쾌, 냉혹
	회색	구름, 쥐, 재, 스님, 안개	소극적, 고상, 겸손, 우울, 무기력, 고독감, 중립, 중성, 평범
	검정	밤, 상복, 연탄, 흑장미, 눈동자	죽음, 공포, 악마, 허무, 고급, 죄, 절망, 부정, 침묵, 엄숙, 시체, 반항

<출처 : 컬러리스트 이론편, 2012 도서출판 예림>

3.2.2. 헤어스타일의 표현 기법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활용된 업스타일의 연출 방법으로는 땃기, 꼬기, 매듭, 말기, 고리, 겹치기 기법이 있다.

땃기(Braid)기법은 전체와 부분의 영역에 활용하여 다양한 업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3가닥이나 그 이상으로 교차하거나 엮는 것을 말하며 손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땃는 것을 말한다. 형태는 서로 교차하는 대각선 구조를 가지면서 납작하거나 원통모양이며 주로 머리가닥의 풀림을 방지하거나 장식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이진희, 2010) 3,5,7가닥 땃기, 응용 스타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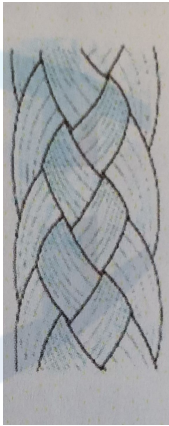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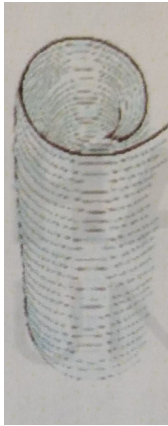
꼬기(Twist)기법은 섹션의 모양, 텐션, 꼬임의 정도에 따라 여성스러움과 활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기법이다. 모발을 한쪽 방향으로 계속 꼬아서 끈 같은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머리카락을 한 가닥 혹은 두, 세가닥으로 나누어 빗줄처럼 감기는 효과를 주기위해 말려있거나 회전한 기법으로 꼬기의 위치와 머리 가닥의 크기와 텐션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

매듭(knot)기법은 일상적인 형태로 면을 연출하고 매듭 요철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하나 이상의 가닥을 사슬처럼 묶어주는 기법이다. 모발 가닥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함께 엮거나 묶어주어 마디를 이룬 것이거나, 끈, 신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엮갈리어 마디를 짓거나 골을 내거나 하여 모양을 만들어 헤어를 장식하는 기법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매듭은 시선을 가운데로 이끌고 균형이 잘 잡힌 모양을(한성진, 2010)만들어준다. 매듭의 크기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가닥 중간이나 끝부분에 만들 수 있어 디자인 내에서 하나의 구성요소로 이용할 수 있다.

말기(Roll)기법은 업스타일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작으로 손가락의 사용과 롤에 미치는 힘의 중심을 잡아 편이 꽃히는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가닥을 평면적인 패널로 만들어 패널 끝이나 면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돌림으로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고 굴리거나 회전하여 굽어지는 모양으로 모발가닥 내에서 말거나 감겨지도록 하는 것이다. 방향이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많이 활용되며 원뿔형, 소라형, 원통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고리(Loop)기법은 머리카락을 둥글게 접거나 구부려서 곡선모양으로 만들어 두상에 고정시키는 기법이다. 외고리, 납작고리, 한겹고리, 겹고리등이 있다. 머리 가닥을 말기 전에 손가락의 위치로 크기를 결정하며 디자인에 있어서 고리의 볼륨, 방향, 크기를 달리하여 원형, 타원형, 삼각형 등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출할 수 있다.

겹치기(overlap)기법은 두 가닥의 모발을 서로 반대쪽 가닥위로 겹쳐서 십자 겹침 효과를 얻는 기법으로 일정한 넓이의 패널을 겹치기 한 헤어스타일은 엘레강스하고 매끈한 질감을 표현하기 용이하다.

땀기	꼬기	매듭	말기	고리	겹치기
					

<표 2> 업스타일 표현기법 (한성진, 2010)

3.2.3 헤어스타일 분석

<표 3>카트린 드 메디치 스타일분석

카트린 드 메디치		
		
헤어스타일 분석		
프랑스 앙리 2세의 왕비 카트린 드 메디치이다. 전형적인 앞가르마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웨이브가 가져오는 액티베이티드한 질감을 헤드드레스로 정리하여 깔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머리 형태 (올레올형)		
조형적 특성	형태	앞가르마를 하고 머리 뒤로 깨끗이 빗어올린 머리에 너비가 넓은 헤드드레스로 깔끔한 이미지 표현
	장식	꽃모양의 장식이 여러 개 배열된 붉은색과 검은색의 헤드드레스로 장식
	질감	울퉁불퉁한 웨이브의 질감을 헤드드레스로 깔끔한 질감으로 표현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표 4>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스타일분석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헤어스타일 분석		
골덴 포인트를 중심으로 머리카락을 원구형의 형태로 디자인하여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자아낸다. 거기에 진주를 여러 개 연결하여 만든 머리띠와 규칙적으로 진주를 배열함으로써 우아한 모습을 배가시켰다.		
조형적 특성	형태	머리크기와 비슷한 원구형의 형태를 골덴포인트를 중심으로 디자인하여 볼륨감 조성
	장식	화려하지만 우아함을 잃지 않는 진주장식의 머리띠로 장식
	질감	기품 있게 올려 묶은 모발을 매끄러운 질감으로 처리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표 5> 가브리엘 데스트레 스타일분석

가브리엘 데스트레		
		
헤어스타일 분석		
프랑스 국왕 앙리4세의 애첩인 가브리엘 데스트레는 목부분의 장식에 방해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머리에 볼륨감을 주어 머리 위쪽부분에서 하나로 묶어 엘레강스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조형적 특성	형태	볼륨감을 한껏 살려 위로 치켜 올린 후 정수리 부분에 하나로 묶은 형태
	장식	화려한 장식의 꽃이를 뒷부분에 장식
	질감	가닥가닥 울퉁불퉁한 질감의 모발을 매끄럽게 위로 올려 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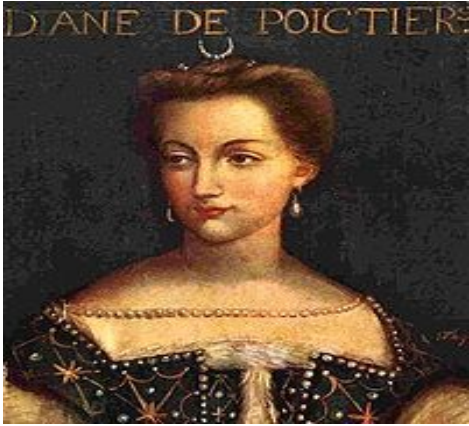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표 6>마리 드 메디치 스타일분석

마리 드 메디치		
 출처: Richard Corson Fashions in Hair		
헤어스타일 분석		
화려한 모양의 목부분의 장식과 연결하여 통일감 있게 아이롱을 이용하여 컬을 형성한 후 컬감을 살려 볼륨감 있게 표현한다.		
조형적 특성	형태	전체적인 웨이브로 가벼운 부피감만 형성
	장식	검은색 헤드드레스로 웨이브 모발과 조화
	질감	구불구불한 웨이브가 연속적으로 표현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표 7> 디안 드 푸아티에 스타일분석

디안		
		
헤어스타일 분석		
50세가 넘는 나이에 20대의 남성과 결혼할 만큼 젊음을 유지했던 디안은 하트모양에 사이드는 볼륨감을 형성하고 탑부분에 장식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조형적 특성	형태	헤어라인을 따라 볼륨감을 준 모발을 가지런히 빗어 올림으로써 우아함 연출
	장식	반달모양의 반짝이는 장식을 두정부에 장식
	질감	두정부를 향해 말아 올린 머리가 매끄러운 질감 연출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표 8> 이사벨라 데스테 스타일분석

이사벨라 데스테		
		
헤어스타일 분석		
프랑스 국왕 앙리 4세의 애첩이자 보포르와 뵈르네유 공작부인이자 몬세유 후작부인이다. 원형에 양털같은 가발을 이용하여 모양을 내주었다.		
조형적 특성	형태	옆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린 긴 타원형의 형태로 우아함과 매듭기법을 통한 헤드드레스로 깔끔함을 표현하고자 함
	장식	양털 모양의 가발로 두정부를 장식
	질감	오돌도돌한 질감의 웨이브기법을 연속으로 배열함으로써 활동적 질감 표현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표 9> 메리 스튜어트

메리 스튜어트		
		
헤어스타일 분석		
스튜어트 왕가 출신의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비이며, 훗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공동 왕이 되는 제임스 1세(스코틀랜드로는 제임스 6세)의 어머니이다.		
조형적 특성	형태	양털같이 웨이브를 강하게 넣었고 둥근 형태로 깔끔하게 고정시켜줌.
	장식	깃털과 구슬을 이용한 모자로 장식효과를 줌.
	질감	오돌도돌한 웨이브를 형성하여 활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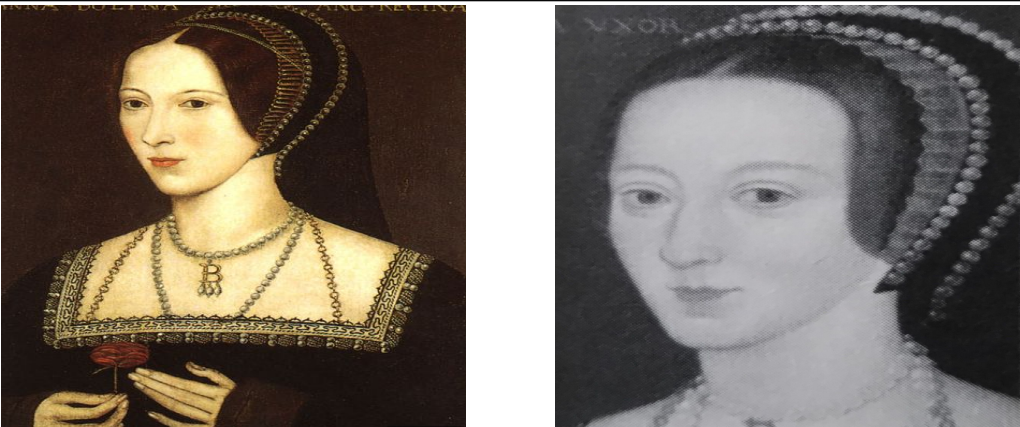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표 10> 잔달브레

잔달브레		
		
헤어스타일 분석		
나바라 왕국의 여왕 후아나 3세이고, 나바라 왕 엔리케 2세와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프랑수아 1세의 조카이며 앙리 4세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조형적 특성	형태	강한 웨이브를 넣어 볼륨감을 살렸고 앞가르마를 하여 깔끔하게 넘겨주었다.
	장식	망사를 이용한 헤드드레스와 뒷부분은 머리를 감싸주었다.
	질감	울퉁불퉁한 웨이브를 넣어 액티비티한 느낌을 줌.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표 11> 앤불린 스타일분석

앤불린		
		
헤어스타일 분석		
헨리 8세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며 1533년 엘리자베스 공주가 태어났다. 잉글랜드 튜더 왕조의 마지막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이다. 앞가르마를 해서 깔끔하게 빗어 넘긴 후 헤드장식품으로 장식효과를 주었다.		
조형적 특성	형태	앞가르마를 하여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옆으로 넘긴 후 뒷부분으로 묶어서 마무리
	장식	진주장식을 많이 넣어 만든 헤드드레스를 이용.
	질감	웨이브를 넣지 않고 매끄럽고 깔끔한 스타일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표 12> 엘리자베스 1세 스타일분석

엘리자베스 1세		
		
헤어스타일 분석		
헤어네트에는 보석이나 구슬을 장식하였고 가발에 후광을 만들어 보석으로 장식해 백 헤어네트에서 빛이 나게 했다. 뒷머리를 방추형으로 철사를 넣어 구부리기도 하고 머리를 받치기도 했다. 의상의 깃을 세우고 장식을 해서 더욱 돋보이게 했다.		
조형적 특성	형태	가르마를 타지 않고 꼬불꼬불한 웨이브머리로 빗어 옆으로 넘긴 후 뒷부분으로 묶어서 마무리
	장식	진주장식을 많이 넣어 만든 헤어네트를 이용.
	질감	웨이브를 많이 넣어 울퉁불퉁한 느낌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IV. 현대적 헤어디자인 작품 제안

4.1 카트린 - 불멸의 사랑

4.1.1 작품 의도 및 일러스트

카트린 드 메디치는 앙리 2세와의 사별 후 줄곧 검은 옷을 입고 다닐 만큼 남편에 대한 애도의 마음과 사랑이 강한 여인이었으며, 검은 베일 속의 백합이라 불리었다. 카트린 드 메디치의 검정과 흰색의 조화를 가진 드레스와 헤드 드레스를 모티브로 하여 [그림 36]과 같은 서양 장례식 업스타일 및 장례식용 모자(funeral bonnet)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36] 장례식용 모자(funeral bonnet)

<출처 : 네이버 검색>

카트린의 초상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카트린의 드레스는 검정과 흰색의 조화가 강렬하게 표현되므로, 본 연구자는 검정과 흰색, 두 가지 톤을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왕비의 우아하면서도 정조있는 모습은 헤드 드레스 안의 감춰진 올린 머리이므로, 이를 표현하기 위해 아이론을 사용하여 모발의 뿌리부터 볼륨감 있는 강한 웨이브를 표현하였다. 또한 웨이브 된 머리를 말아 올려서 두상의 탑 부분에 볼륨감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침묵, 엄숙함을 상징하는 블랙의 헤어 피스를 제작하여 장례 식용 모자를 형상화하였다. 메디치가문의 상징인 백합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질감은 헤드 드레스와 꽃모양의 장식을 이용하여 다소 밋밋해 보이는 매끄러운 질감을 보완하고자 오돌토돌한 느낌으로 표현을 했다.



<표 13> 카트린 - 불멸의 사랑 일러스트



<출처: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된 일러스트임>

4.1.2 불멸의 사랑 작품 분석

<표 14> 카트린 - 불멸의 사랑 작품 분석

작품모티브		작품
		
작품설명		
아이롱을 이용하여 겹을 형성한 후 겹감을 살려 볼륨감 있게 표현했다. 카트린의 식지 않는 사랑을 불멸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바 블랙을 이용하여 경건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조형적 특성	형태	탑부분을 수직방향으로 부풀리고 세운 후 헤드드레스로 치장
	장식	블랙으로 만든 헤어피스에 메디치가문의 상징인 백합 액세서리로 장식
	질감	헤드드레스와 꽃모양의 장식을 이용해 다소 밋밋해 보이는 매끄러운 질감을 보완하고자 오돌토돌한 느낌으로 표현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1.3 작품 제작 순서

<표 15> 카트린 - 불멸의 사랑 작품 제작 순서

1. 긴가발을 준비한다.	2. 아이롱을 이용하여 탄력있는 웨이브를 형성한다.
	
3. 사이드의 머리는 남겨놓고 골덴 포인트에 꼬기 기법으로 묶는다.	4. 사이드의 머리를 꼬아서 모양을 낸 후 골덴 포인트에 연결한다.
	
5. 제작한 악세사리를 올려 준다.	6.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1.4 작품 사진

<표 16> 카트린 - 불멸의 사랑 작품 사진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2. 디안 - 영원한 젊음

4.2.1 작품 의도 및 일러스트

앙리 4세의 정부였던 디안은 50세의 나이에든 불구하고 20대의 젊음과 아름다운 피부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한다. 20년이나 젊은 앙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디안의 영원한 젊음을 이브닝 파티 업스타일(evening party up-style)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디안의 하트형 헤어를 모티브로 삼아, 사랑스럽고 따뜻한 이미지와 밝고 경쾌한 젊음을 표현했다.

형태적으로는 땅기 기법을 이용하여 버머리를 연출하였으며 모발의 흐름을 뒤로 흐르도록 한 후 남은 모발을 뒷부분에서 커다란 꽃모양으로 형상화하였다. 백포인트쪽으로는 화려함의 상징인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고 프론트쪽에서는 우아함을 더한 보랏빛 컬러로 염색을 해 포인트를 주었다. 보라색 큐빅이 박힌 악세사리를 이용해 포인트를 주었으며, 질감은 오돌도돌한 땅기 질감으로 역동적인 젊음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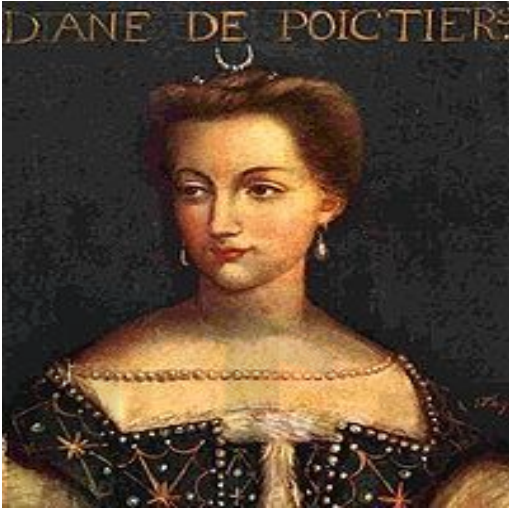
<표 17> 디안 - 영원한 젊음 일러스트



<출처: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된 일러스트임>

4.2.2 작품 분석

<표 18> 디안 – 영원한 젊음 작품 분석

작품모티브		작품
		
작품설명		
20대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디안의 모습을 자주색과 보라색을 이용한 컬러로 사랑스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조형적 특성	형태	땅기 기법을 이용하여 모발의 흐름을 뒤로 흐르도록 한 후 남은 모발을 뒷부분에서 커다란 꽃모양으로 형상화함
	장식	자주색과 보라색으로 염색 후 액세서리로 장식
	질감	오돌도돌한 땅기 질감으로 역동적인 젊음을 표현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2.3 작품 제작 순서

<표 19>디안 - 영원한 젊음 작품 제작순서

1. 긴머리에 보라색과 핑크색으로 컬러를 입힌다.	2. 이어포인트를 기준으로 색션을 나눈다.
	
3. 앞머리와 옆머리는 땃기를 하여 골덴 포인트에 연결시킨다.	4. 백부분은 가운데로 모아 꽃모양으로 웨이브를 살려준다.
	
5. 핑크빛 악세사리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준다.	6.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2.4 작품 사진

<표 20>디안 - 영원한 젊음 작품 사진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4.3. 마리 - 꿈 너머 꿈

4.3.1 작품 의도 및 일러스트

프랑스 앙리 4세의 부인인 마리 드 메디치는 왕비의 면모답게 우아한 업스타일의 기법을 많이 활용했다. 마리 드 메디치의 헤어스타일을 통해 백일잔치 업스타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강하게 말린 아이론 웨이브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원형의 가발은 건강과 앞날의 큰 꿈을 기약하는 백일잔치의 개념과 일치하는 바이다. 제목에서와 같이 꿈 너머 꿈은 백 포인트에 두 개의 꽃으로 엄마와 아이를 상징하고 하위 양감스타일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웨이브를 이용하여 올림머리를 한 후 헤어장식으로 섬세한 부분까지 표현하도록 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모류의 방향을 아래로 흐르도록 한 후 백 부분에 포인트를 주었다.

형태적으로는 기품 있는 여왕에게 어울리는 하위 양감스타일의 형태를 기본으로 단아한 느낌의 꽃 장식을 덧대어 다채로움을 연출했다. 장식으로는 엘레강스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금색, 갈색 컬러의 리본과 꽃모양의 헤어피스를 제작하여 장식품으로 활용하였다. 질감으로는 매끄러운 질감의 모발에 오돌토돌한 느낌을 혼합하여 표현했다.

<표 21> 마리 - 꿈 너머 꿈 일러스트



<출처: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된 일러스트임>

4.3.2 작품 분석

<표 22> 마리 - 꿈 너머 꿈 작품 분석

작품 모티브		작품
		
작품 설명		
여왕의 이미지에 맞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모류의 방향을 아래로 흐르도록 한 후 백부분에 엘레강스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헤어피스를 제작하여 장식품으로 활용하였다.		
조형적 특성	형태	기품 있는 여왕에게 어울리는 하위양감스타일의 형태를 기본으로 단아한 느낌의 꽃 장식을 덧대어 다채로움 연출
	장식	금색, 갈색을 겸한 헤어피스 활용
	질감	매끄러운 질감의 모발에 공기 방울과 같은 장식을 혼합하여 사용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3.3 작품 제작 순서

<표 23> 마리 -꿈 너머 꿈 작품 제작 순서

1. 긴가발을 준비한다.	2. 이어포인트를 기준으로 섹션을 나눈다.
	
3. 네이프부분에 머리를 묶어주고 쌍과 함께 풍성하게 묶는다.	4. 사이드는 땡기를 이용하여 네이프에 연결시켜 모양을 준다.
	
5. 돌돌 말아서 머리다발에 모양을 내고 악세사리로 장식을 한다.	6.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3.4 작품 사진

<표 24> 마리 -꿈 너머 꿈 작품 사진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4 이사벨라 - 콤비네이션

4.4.1 작품 의도 및 일러스트

르네상스 최고의 교양 있는 여성이자, 후원자, 정치적인 외교력을 겸비한 여성이었던 이사벨 데스테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을 하고 있다. 이사벨라 데스테의 헤어스타일을 응용해 사랑의 서약으로 앞날을 약속하는 의미가 깃든 약혼식 스타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리 모형의 헤어피스를 제작하여 화관을 표현하였고 사이드 머리는 땃기를 이용하여 반지를 의미하는 링으로 마무리했다. 풍성한 가발을 이용하여 볼륨감 있는 헤어를 연출했던 그녀의 이미지를 심플하고 깔끔한 모양의 내추럴 스타일로 형상화하였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이미지와 이사벨라 데스테가 지닌 정치적인 파워를 현대적으로 접목해 깔끔하고 심플하나 강력한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형태적으로는 옆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린 긴 타원형의 형태로 우아함과 매듭기법을 통한 헤드드레스로 깔끔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장식으로는 머리띠 모양의 헤드 드레스로 두정부를 장식했고 질감은 매끄러운 질감의 매듭기법을 연속으로 배열함으로써 혼합된 질감 표현을 했다.

<표 25> 이사벨라 - 콤비네이션 일러스트



<출처: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된 일러스트임>

4.4.2 작품 분석

<표 26> 이사벨라 -콤비네이션 작품 분석

작품모티브		작품
		
작품설명		
우아하고 기품 있는 이미지와 이사벨라 데스테가 지닌 정치적인 파워를 현대적으로 접목해 깔끔하고 심플하나 강력한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조형적 특성	형태	옆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린 긴 타원형의 형태로 우아함과 매듭기법을 통한 헤드드레스로 깔끔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장식	머리띠 모양의 헤드드레스로 두정부를 장식
	질감	매끄러운 질감의 매듭기법을 연속으로 배열함으로써 혼합된 질감 표현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4.3 작품 제작 순서

<표 27> 이사벨라 -콤비네이션 작품 제작 순서

1. 긴가발을 준비한다.	2. 이어포인트를 기준으로 섹션을 나눈다.
	
3. 앞머리부터 사이드까지 땃기를 이용하여 연출한다.	4. 땃은 머리를 백부분으로 돌려 감아 핀처리를 한다.
	
5. 밑부분의 머리를 갈래로 땃아 묶어주고 헤어피스를 올려준다.	6.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4.4 작품 사진

<표 28> 이사벨라 - 콤비네이션 작품 사진

정면	좌측면
	
우측면	후면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5 마르그리트 - 애증의 강

4.5.1 작품 의도 및 일러스트

카트린 드 메디치의 막내딸로 ‘영화’ 마고의 주인공이었던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인이었다. 젊고 활력 넘치는 마르그리트의 매력을 헤어스타일에 접목시켜, 볼륨감있는 업스타일에 헤드드레스의 장식만큼이나 화려한 이미지를 지닌 그녀의 스타일을 피로연 업스타일로 제안하고자 한다.

아름다운 외모와 지성을 양쪽 비대칭의 형태로 표현했고 피로연의 화려함을 탑부분의 꽃으로 형상화했다. 우아함의 정점인 골덴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머리모양을 모티브로 하고 진주모양의 머리장식을 땡기 기법을 이용하여 귀 옆으로 늘어뜨림으로서 엘레강스한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형태적으로는 골덴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기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방향을 다르게 배치하여 다채로움을 주고자 하였다. 장식은 반짝반짝 빛나는 삼각형 모양의 큐빅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었고 질감은 윤기가 흐르는 느낌으로 생기, 발랄, 활동적 이미지를 연출했다.

<표 29> 마르그리트 -애증의 강 일러스트



<출처: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된 일러스트임>

4.5.2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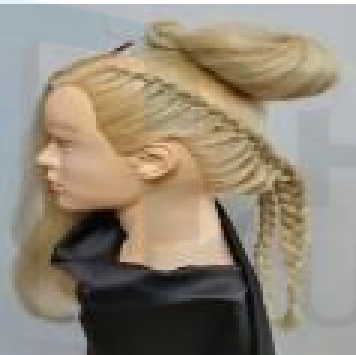
<표 30> 마르그리트 -애증의 강 작품 분석

작품모티브		작품
		
작품설명		
형태적으로 우아함의 정점인 골덴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머리모양을 모티브로 하고 진주모양의 머리장식을 땡기 기법을 이용하여 귀 옆으로 늘어뜨림으로서 엘레강스한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조형적 특성	형태	골덴포인트를 중심으로 땡기 기법을 활용했고 방향을 다르게 배치하여 다채로움을 주고자 하였다
	장식	반짝반짝 빛나는 삼각형 모양의 큐빅을 정수리에 장식 .
	질감	윤기나는 질감으로 생기, 발랄, 활동적 이미지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5.3 작품 제작 순서

<표 31> 마르그리트 - 애증의 강 작품 제작 순서

1. 긴가발을 준비해서 앞머리와 옆머리를 연결하여 나눈다.	2. 골덴 포인트는 별도로 섹션을 나누어 놓는다.
	
3. 앞머리를 시작으로 네이프까지 땀기 기법을 이용하여 연출한다.	4. 양쪽을 모두 땀아 핀으로 고정하여 마무리한다.
	
5. 골덴 포인트는 볼륨감을 살려 말기기법으로 연출한다.	6.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5.4 작품사진

<표 32> 마르그리트 - 애증의 강 작품 사진

정면	좌측면
	
우측면	후면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6 가브리엘 - 잊지 말아요

4.6.1 작품의도 및 일러스트

프랑스 국왕 앙리 4세의 애첩이자 보포르와 뵈르네유 공작부인이자 몬세유 후작부인인 가브리엘을 프랑스 궁정에서 대동하고 다녔고 그녀는 좋은 조언자였다. 가브리엘로 인해 카톨릭으로 개종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세자르라는 아들도 태어나 몽소 후작 부인의 지위가 주어졌다. 앙리에게 사실상의 아내가 되었고 앙리의 결혼 요청으로 교황청에 마르그리트와의 혼인 무효 신청을 했으나 중병에 걸린 가브리엘은 죽음에 이르렀고 장례는 왕비의 대우로 치러졌다. 앙리4세와의 변함없는 사랑을 추구했던 목마른 심정을 헤어로 표현해보고자 했다. 가브리엘의 헤어스타일을 모티브로 하여 풍성한 볼륨감과 우아함을 강조한 웨딩업스타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결혼식에 생명의 뜻을 담은 초록색과 희망을 상징하는 노랑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둘이서 하나 된다는 의미로 프론트에 고리모양을 형상화했다.

우아함의 정점인 골덴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머리모양을 모티브로 하고 꽃모양의 머리장식을 사용, 롤기법을 이용하여 엘레강스한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형태는 골덴포인트를 중심으로 롤기법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말아주고 백콤을 넣어 풍성하게 볼륨을 주었다. 장식은 초록색이 도는 반짝이는 꽃모양 큐빅을 정수리에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질감은 윤기나는 질감으로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표 33> 가브리엘 - 일러스트



<출처: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된 일러스트임>

4.6.2 작품 분석

<표 34> 가브리엘 - 잊지 말아요 작품분석

작품모티브		작품
		
작품설명		
형태적으로 우아함의 정점인 골덴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머리모양을 모티브로 하고 꽃모양의 머리장식을 사용, 롤기법을 이용하여 엘레강스한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조형적 특성	형태	골덴포인트를 중심으로 롤기법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말아주고 백콤을 넣어 풍성하게 볼륨을 주었다.
	장식	초록색이 도는 반짝이는 꽃모양 큐빅을 정수리에 장식
	질감	윤기나는 질감으로 우아한 이미지 연출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6.3 작품 순서

<표 35> 가브리엘 작품제작 순서

1. 긴 머리 가발을 준비한다.	2. 포인트 컬러로 노랑, 초록을 앞머리에 염색한다.
	
3. 탑부분은 볼륨을 주고 백부분에 고정하여 웨이브를 살려 모양을 낸다.	4. 앞머리는 꼬기를 해서 팔자모양으로 연결해서 모양을 내준다.
	
5. 사이드는 결을 살려 올려준다.	6.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6.4 작품 사진

<표 36> 가브리엘 - 작품 사진



<출처 : 본 연구자 작성표>

4.7 작품 요약

연구자가 메디치 가문의 여성들을 모티브를 하여 현대적으로 제안한 6가지 업스타일을 <표 37>로 요약하였다.

<표 37> 현대적 스타일 제안 요약

번호	작품명	작품모티브	작품사진	형태	질감	장식	제안
1	<u>카트린</u> 불멸의 사랑			탑부분을 수직방향으로 부풀리고 세운 후 헤드드레스로 치장	매끄러운 질감, 오돌토돌한 느낌	블랙 헤어피스, 백합 액세서리.	장례식 업스타일
2	<u>디안</u> 영원한 젊음			땅기기법을 이용. 모발의 흐름을 뒤로 흐르도록 함.	오돌토돌 땅기 질감	자주, 보라 염색. 큐빅으로 장식	이브닝 업스타일

3	마리 꿈 너머 꿈			기품 있는 하위양감 스타일	매끄 러운 질감	금색, 갈색 헤어 피스 활용	백일 업스 타일
4	이사벨 콤비 네이션			옆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린 긴타원형 의 형태.우 아함과 매듭기법	매끄러 운 질감의 매듭기 법. 혼합된 질감 표현	머리 띠 모양 의 헤드 드레 스로 두정 부를 장식	약혼 식 업스 타일
5	마르 그리트 애증의 강			골덴포인 트를 중심으로 말기 기법. 방향을 다르게 배치	윤기나 는 질감으 로 생기, 발랄, 활동적 이미지	삼각 형 모양 의 큐빅	피로 연 업스 타일
6	가브 리엘 잊지 말아요			골덴포인 트를 중심으로 롤기법. 백콤을 넣어 풍성하게 볼륨감.	윤기나 는 질감으 로 우아한 이미지 연출	초록 색이 도는 꽃모 양 큐빅	웨딩 업스 타일

V. 결 론

본 연구는 메디치 가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을 초상화나 그림을 모티브로 활용하여 그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헤어디자인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디자인적인 가치를 재해석 하였다. 여성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가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의 커다란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 바 미의 문화나 양식의 변화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미용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헤어스타일에 대한 표현 욕구는 변하지 않는 양식으로 존재해왔다.

메디치 가문의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첫째, 메디치 가문의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서적, 박물관 전시물, 선행 연구물이나 사진 자료, 문헌, 학회지를 참고로 하여 여성들에 대해 분석한 후, 동시대에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을 통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둘째, 여성들이 지닌 헤어스타일의 특성을 응용한 헤어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하여 헤어디자인의 조형 요소를 형태, 장식, 질감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작품 제작을 위해 업스타일에 대한 기술적 테크닉을 분석하고, 악세사리나 헤어피스를 제작하였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헤어스타일을 응용하여 현대적 기법으로 재해석한 후 작품 창작을 하였다.

메디치가문의 여성들은 총 10명의 헤어스타일을 분석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태적으로는 왕실의 여인들이 지닌 우아하고 기품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업스타일을 활용했고 결혼 전에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스타일을 선호했다면 기혼 여성들의 스타일로 머리카락을 잘 정돈하여 감추는 형태를 주로 연출하였고 가르마는 거의 가운데 가르마를 땀으며 올백으로 곱게 빗어 우아한 스타일을 표현했고 다양한 방법의 땀기 기법을 이용한 스타일이 인기였다. 장식적인 특징으로는 금, 은, 진주, 보석 등을 이용하여 아름다움을 더했고 베일이나 수건, 여러 가지 헤드드레스를 사용하여 머리 장식을 했는데 헤어네트로 싸는 형, 터번모양, 뿔모양, 하트 모양 등을 활용했다. 가발을 이용하여 풍성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했다. 질감 표현으로는 고대기를 이용해 강한 웨이브의 연출과 땀기 기법을 이용한 액티비티한 느낌과 깔끔하게 빗어 올린 부드러운 질감 표현이 많았고 헤어 컬러로는 황금색, 금색, 갈색 등의 컬러를 선호했는데 왕족

출신들답게 우아함과 세련됨을 표현한 것이다. 변하지 않는 미의 기준이 된 금색 모발은 귀족임을 나타내는 금색의 정도에 따라 특별한 손질을 더했다.

메디치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을 모티브로 작품 제작을 위해 업스타일 등 헤어디자인의 기술적 테크닉을 분석하고 악세사리나 헤어피스를 제작하여 미적 가치를 더해주었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해 장례식, 이브닝파티, 백일잔치, 약혼식, 피로연, 웨딩업스타일의 총 6작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카트린 - 불멸의 사랑’으로 카트린 드 메디치는 앙리 2세와의 사별 후 줄곧 검은 옷을 입고 다닐 만큼 남편에 대한 애도의 마음과 사랑이 강한 여인이었으며, 검은 베일 속의 백합이라 불리었다. 카트린 드 메디치의 검정과 흰색의 조화를 가진 드레스와 헤드 드레스를 모티브로 하여 서양 장례식 업스타일 및 장례식용 모자(funeral bonnet)를 제안하고자 한다. 검정과 흰색, 두 가지 톤을 사용하여 디자인하였고 아이론을 사용하여 모발의 뿌리부터 볼륨감 있는 강한 웨이브를 형성하여 말아 올린 다음 두상의 탑 부분에 포인트를 주었으며, 침묵, 엄숙함을 상징하는 블랙의 헤어 피스를 제작하여 장례식용 모자를 형상화하였다.

두 번째 작품의 제목은 ‘디안 - 영원한 젊음’으로 앙리 4세의 정부였던 디안은 50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20대의 젊음과 아름다운 피부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한다. 20년이나 젊은 앙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디안의 영원한 젊음을 이브닝 파티 업스타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디안의 하트형 헤어를 모티브로 삼아, 사랑스럽고 따뜻한 이미지와 밝고 경쾌한 젊음을 표현했다. 형태적으로는 프론트에 땃기 기법을 이용하여 버머리를 연출하였으며 우아함을 더한 보랏빛 컬러로 염색을 했고 백포인트는 화려함의 상징인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고 커다란 꽃모양으로 형상화하였다. 보라색 큐빅이 박힌 악세사리를 이용해 포인트를 주었으며, 질감은 오돌도돌한 땃기 질감으로 역동적인 젊음을 표현했다.

세 번째 작품의 제목은 ‘마리 - 꿈 너머 꿈’으로 프랑스 앙리 4세의 부인인 마리 드 메디치가 지닌 왕비의 우아한 업스타일을 통해 백일잔치 업스타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강하게 말린 아이론 웨이브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원형의 가발은 건강과 앞날의 큰 꿈을 기약하는 백일잔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고 제목에서와

같이 꿈 너머 꿈은 백 포인트에 두 개의 꽃으로 엄마와 아이를 상징하고 네이프 부분의 풍성함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형태적으로는 기품 있는 여왕에게 어울리는 하위 양감스타일에 꽃 장식을 덧대어 다채로움을 연출했다. 장식으로는 엘레강스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금색, 갈색 컬러의 리본과 꽃 모양의 헤어피스를 제작하여 장식품으로 활용하였다. 질감으로는 매끄러운 질감의 모발에 오돌토돌한 느낌을 혼합하여 표현했다.

네 번째 작품의 제목은 ‘이사벨라 - 콤비네이션’으로 르네상스 최고의 교양 있는 여성이자, 후원자, 정치적인 외교력을 겸비한 여성이었던 이사벨 데스테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을 응용해 사랑의 서약으로 앞날을 약속하는 의미가 깃든 약혼식 스타일을 제안하고자 했다. 고리 모형의 헤어피스를 제작하여 화관을 표현하였고 사이드 머리는 땅기를 이용하여 반지를 의미하는 링으로 마무리했다. 그녀가 지닌 정치적인 파워를 현대적으로 접목해 깔끔하고 심플하나 강력한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형태적으로는 옆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린 긴 타원형의 형태로 우아함과 매듭기법을 통한 헤드드레스로 깔끔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장식으로는 머리띠 모양의 헤드 드레스로 두정부를 장식했고 질감은 매끄러운 질감의 매듭기법을 연속으로 배열함으로써 혼합된 질감 표현을 했다.

다섯 번째 작품의 제목은 ‘마르그리트 - 애증의 강’으로 카트린 드 메디치의 막내딸로 ‘영화’ 마고의 주인공이었던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지성, 젊고 활력 넘치는 마르그리트의 매력을 헤어스타일에 접목시켜, 볼륨감 있는 업스타일에 헤드드레스의 장식만큼이나 화려한 이미지를 지닌 그녀의 스타일을 피로연 업스타일로 제안하고자 한다. 아름다운 외모와 지성을 양쪽 비대칭의 형태로 표현했고 피로연의 화려함을 탑부분의 꽃으로 형상화했고 진주모양의 머리장식을 땅기 기법을 이용하여 귀 옆으로 늘어뜨림으로서 엘레강스한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형태적으로는 골덴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기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방향을 다르게 배치하여 다채로움을 주고자 하였다. 장식은 반짝반짝 빛나는 삼각형 모양의 큐빅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었고 질감은 윤기가 흐르는 느낌으로 생기, 발랄, 활동적 이미지를 연출했다.

여섯 번째 작품의 제목은 ‘가브리엘 - 잊지말아요’로 프랑스 국왕 앙리 4세의

애첩이었던 그녀는 앙리 4세와의 변함없는 사랑을 추구했던 아름다운 가브리엘의 헤어스타일을 모티브로 하여 풍성한 볼륨감과 우아함을 강조한 웨딩업스타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결혼식에 생명의 뜻을 담은 초록색과 희망을 상징하는 노랑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둘이서 하나 된다는 의미로 프론트에 고리모양을 형상화했다. 롤기법을 이용하여 엘레강스한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형태는 골덴포인트를 중심으로 롤기법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말아주고 백콤을 넣어 풍성하게 볼륨을 주었다. 장식은 초록색이 도는 반짝이는 꽃모양 큐빅을 정수리에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고 질감은 윤기나는 질감으로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메디치가문 여성들의 헤어 스타일을 응용해 현대적 헤어디자인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이나 자료의 다양한 정보에 따른 연구가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메디치 가문의 여성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대적 이미지로 재조명해 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동시대에 유행했던 스타일에 대한 비교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유행 스타일 비교분석을 통해 다양한 작품으로 창작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HANSUNG
UNIVERSITY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상진. (2013).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21세기북스.
- 진태연, 손지연, 곽형심, 윤복연. (2010). 『Scalp Hair Cut』. 청구문화사.
- 시오노 나나미. (1996). 『르네상스의 여인들』. 한길사.
- 김복례. (2006). 『프랑스왕과 왕비』. 북코리아.
- 성제환. (2013). 『피렌체의 빛나는 순간』. 문학동네.
- 하인리히 뵐플린 옮김. (2002). 『르네상스의 미술』. humanist.
- 윤운중. (2013). 『윤운중의 유럽미술관 순례 1, 2』. 민요사.
- 민혜련. (2013). 『르네상스』. 인문서재.
- 조승연. 앤드스튜디오. (2007). 『르네상스 미술이야기』. 세미콜론.
- 리처드코슨. (2010). 김광숙, 심인섭, 문윤경, 구자명 번역.
『FASHIONS IN HAIR 헤어패션 5000년』. 동서교역.
- 신금자. (2012). 『나는 꽃이 아니다』. 멘토.
- 브라운 베르거 게랄트. 모명숙 옮김. (2010). 『세계를 움직인 돈의 힘』. 현암사.
- 최선미, 김상근. (2008). 『르네상스 창조경영』. 21세기북스.
- G.F 영. 이길상 옮김. (1997). 『메디치』. 현대지성사.
- 크리스토퍼 하버트. 한은경 옮김. (2001). 『부.패션.권력의 제국 메디치가이야기』.
생각의 나무.
- 이은기. (2002). 『르네상스 미술과 후원자』. 시공사.
- 캐롤 스트릭랜드. (2010). 『클릭, 서양미술사 동굴벽화에서
서양미술까지』. 예경.
- 김환. (2009). 『UPSTYLE』. 도서출판 도원.
- 김옥연 외. (2013). NEW 미용문화사. 메디시언.
- 롤랑 르 몰레. 임호경 옮김. (2006). 『조르조 바사리』. 미메시스.

- 정현진 외. (2004). 미용문화사. 광문각.
- 권구정 외. (2006). MAKEUP ICON. 청구문화사
- 김춘득. (2002). 동서양 미용문화사. 현문사.
- 김경하. (2004). 『르네상스 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성』 .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 최수현. (1994). 『복식의 미적 범주 : 르네상스, 바로크 복식에 적용하여』 .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기봉. (2009). 『조형적 형태를 중심으로 한 헤어디자인 : 컷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대학원.
- 최점숙. (2007). 『모발 길이에 따른 업스타일 연구』 .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 이선민. (2006). 『현재건축의 색채사고 체계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임경미. (2008).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본 15세기 피렌체의 유딧(Judith) 도상』 .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선옥. (2011). 『문화강국 리더십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과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문화예술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송지민. (2012). 『15세기 피렌체 산 지오바니 세례당의 <천국의 문> 연구 -대중매체적 성격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2014). 『이탈리아와 한국 미술관의 전시, 문화콘텐츠 교육프로그램 비교연구 -』 .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제지원. (1991). 『르네상스 미술에 있어서 메디치(Medich)가의 역할 -미켈란젤로를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애. (2008). 『조선시대 트레머리의 헤어 디자인 분석 -드라마 ‘황진이’의 비대칭 트레머리를 중심으로-』 .

- 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혜. (2014). 『얼굴의 시대적 이상미 -르네상스부터 낭만주의까지 초상화의 얼굴비례와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영미. (2014). 『르네상스시대 인물화 색채특성에 관한 연구 -회화작품 얼굴이미지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 최선주. (2012). 『꽃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헤어디자인 연구 -업스타일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 임정인. (2009). 『대 콩테(Le Grand Conde)를 통해서 본 루이 14세 시대의 권력과 사회』 .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선숙. (2013). 『모자 이미지를 모티브로 창작 업스타일 연구』 .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예술대학원.
- 여경자. (2014). 『표현기법에 따른 Salon Up-style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영산대학교 대학원.
- 한성진. (2010). 『현대 퓨전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유화정. (2009). 『과장된 서양 여성의복과 헤드드레스의 상관성 연구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소연. (2013). 『후기고딕 초상화의 양식적 특징을 응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헤드 드레스(Head Dress)의 장식적 표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김민주. (2011). 『웨딩헤드드레스, 헤어스타일, 넥라인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세옥, 이영주, 송명건. 청나라와 프랑스의 여성 헤어스타일 비교연구 -17,18세기를 중심으로 디자인 포럼 제 7집.

박하나. (2003). 『구성주의 조각을 응용한 헤어조형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최선주. (2012). 『꽃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헤어디자인 연구

-업스타일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송혜원. (2012). 『동·서양 인물화 비교연구 -조선시대와 르네상스시대를

중심으로 - 』 .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박현숙. (2012).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회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 -현존하는

대표적 회화를 중심으로- 』 .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신미순. (2002).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 대한 도상해석학적 연구-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은옥. (2009).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상화의 양식적 특성 연구』 .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장수은. (2013). 『벨에포크시대의 뽀띠부르주아의 헤어스타일 특성분석을

통한 헤어디자인 연구』 .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정 현. (2004). 『지도층 여인의 스타일 연구-서양과 한국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고주영. (2009). 『가발디자인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헤어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류기주, 김민자. (1992).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 고대 이집

트에서 낭만주의 시대까지』 . 한국의류학회 Vol.16 No.4 [1992]

2.국외문헌

Richard Corson. (2003). Fashions in Makeup :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London : peter owen.

Nathalie Chahine 외. (2000). 『BEAUTY』 . UNIVERSE

Richard Corson. (2001). Fashions in Hair : THE FIRST FIVE THOUSAND YEARS. PETER OWEN LONDON.

3. 인터넷 자료

<http://blog.naver.com/hr31027/220159689260>

<http://blog.naver.com/sjj6201/90193512791>)

wikimedia commons

http://ko.wikipedia.org/wiki/%EA%B5%90%ED%99%A9_%ED%81%B4%EB%A0%88%EB%A9%98%EC%8A%A4_7%EC%84%B8

<http://blog.naver.com/zigsew/220139768165>)

<http://café.daum.net/500chosun>)

<http://blog.naver.com/zigsew/220139768165>)

The Bridgeman Art Library

<http://mny0824.blog.me/20111940997>)

<http://cafe.naver.com/kseg/7255>)

ABSTRACT

A Proposal on hair style Review of Contemporary Desig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house of de medich women.

Heo, Jeong-ae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propose of this sutdy is to review the artistic value and pictorial superiority of house of medich women's hair style which was incredibly influential to European Culture , to create comtemporany hair design work by applying house of de medich women's character from their portrait and painting.

First, historical consideration of hair trend for renaissance are examined by research, scholarly journals, history books, pictures ,articles on exhibition to investigate women's hair style in renaissance.

Second, house of de medich women's hair design characteristic are categorized by hair form, decoration, texture for sake of creating comtemporany hair design.

Third, Proposals on Comtemporany hair style by applying women's hair of de medich and women's hair of renaissance are created through a modern method of hair up-style.

As a result of historical consideration, researcher propose 6 works by house of de medich women's hair style.

A subject of First creating work is immortality love for Catherin. The researcher propose up-style and hair bonnet for funeral, which are motivated by black and white combination dress of Catherine.

A subject of second creating work is undying love of Diane. The researcher Propose evening party up-style for Diane who was cradle snatcher captured a henry's heart

A subject of third creating work is Dream over dream. Marie de Medici was wife of Henri IV and Her up-hair style was elegance. The research propose up-style for banquet given to a hundred-day-old baby.

A subject of fourth creating work is Combination for Isabella, whom was cultured, sponsor, politic, diplomatic. The researcher suggest comtemporany up-style for engagement, which means declarations of undying love by being elegance.

A subject of fifth creating work is river of love and hatred. Marguerite de valois, who was 'mago' character of movie, has beautiful appearance, intelligence, energy of youth. The researcher suggest up-style for banquet by her image.

A subject of fifth creating work is 'Don't forget me' for Gabrielle d'Estrees, who was Henri IV ' concubine. The researcher propose a wedding up-style by making a volume and elegance.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er creates comtemporany up-style by house of De medic women's hair style. Second, There are many creative work by trend of art or architecture. However, there are less creative work by person's character. The researcher expect that research could be proceed by many noble family which are contribute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keyword】 house of de medich, Firenze, renaissance, hair design, guild